

Weekly 공감

2009 11.25
No.38(통권 139호)

온(溫) 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韓美 정상 "FTA 내년 통과" 공감

기획특집 한국형 관광은 무엇인가

'문화공감' 프로그램으로 수능 스트레스 훨훨~

40년 만에 원조국 된 한국… 세계 첫 사례

코치로 인생 2막 여는 '우생순' 골키퍼 오영란


더 큰 대한민국 2010 G20 코리아
세계로, 미래로!
FTA,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풍요로운 우리의 내일을 위해”
KOREA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템플스테이처럼 한국적 콘텐츠로 승부하자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관광(觀光)의 속뜻을 풀면 '빛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관광으로 기대하는 빛이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찬란한 빛이 될지, 무미건조한 회색빛이 될지는 재도약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관광,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국 관광이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은 세계 1백33개국 중 31위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9월 기준 외래 관광객 수는 5백7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퍼센트 증가했다. 이미 연간 유치 목표의 77.1퍼센트를 달성한 것이다.
관광수입 면에서도 외국인의 1인당 지출액은 2007년 8백91.7달러, 지난해 1천3백9달러, 올해 1천1백86달러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국제적 평가지수나 계량적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아직까지는 진정한 관광부국이라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명실공히 관광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템플스테이를 관광 성공사례로 뽑았다. 템플스테이가 이처럼 세계인을 사로잡는 한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한국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한국적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관광의 문화적 가치를 시사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초창기 관광은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목표였던 외화 획득 수단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현재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적, 지역적 가치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해졌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에 보이는 관심과 열기를 통해 우리는 이미 관광산업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확인했다. 현 시점에서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의 문화자산을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는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 관광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기존 전략시장을 확대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해 도약기에 접어든 한국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손님을 초대했으니 그들의 구미에 맞는 대접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더라'는 평을 기대해봄직하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아래 추진되는 녹색관광은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문화, 녹색기술의 조화를 통해 기존의 농촌관광이나 생태관광과는 다른,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미 싱가포르, 태국 등이 선점한 의료관광이나 음식관광 역시 우리만의 색채를 더해 한국적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류 또한 날카로운 잣대로 점검해 재점화해야 한다.

우리는 창조의 시대, 상상력의 시대, 역발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우리 시대가 안고 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아직 한국의 관광산업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으며, 그에 따른 희망과 목표가 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을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한 관광 상품 개발에 실어보자. 한국적 콘텐츠가 담긴 관광 상품 개발이 곧 관광부국으로 가는 우리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11.25_No.38(통권 139호)

기획특집

대한민국 觀光富國으로 거듭난다

정부는 관광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의 활성화로 '행복한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 개개인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관광강국을 넘어 관광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18 **총론** | 관광 살리면 일자리도 산다
20 **현장** |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보니…
22 **미용관광** | 한국 가면 예뻐진다
24 **의료관광** | 의료관광객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자
26 **인터뷰** |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미용관광 넘어 중병 진료 목표 삼아야"
28 **MICE 관광** | 국제회의 유치는 관광산업의 꽃
30 **생태녹색관광** | 'DMZ'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만든다
3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 각광
34 **한류관광** |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관광까지 이어진다
36 "멀리서 찾아온 손님 안전하고 편안하게"
39 **인터뷰** | 신동빈 한국방문의 해 위원장 "지역관광 활성화로 경쟁력 높이자"
40 **현장 중계** | 한중 관광장관회의 "한중 無비자 추진"
41 **기고** | "한국형 관광… 시스템적 접근 필요한 때"
42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 연다
45 **인터뷰** |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싸구려 관광·안전 불감증 없앨 것"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01 **Reader & Leader** | 정갑영 한국관광문화연구원장
04 **공감 라운지**
07 **포토 에세이** | 자작나무 숲 사이로
08 **포커스** | 한미 정상회담… 탄탄한 한미 공조 재확인
10 **브리핑 룸** | 한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2 **인터뷰** | 대통령 국제자문관 루이스 모레노 IDB 총재
"중남미 · 한국 녹색성장 윈 · 윈 합시다"
13 **경제 브리핑** | 한국경제 내년 경제성장률 OECD 1위
14 **연속 기획** | 신종플루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받아

46 **문화 현장** |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
48 **새로운 희망, 기부 ④** | 실버문화봉사단 '북북'
50 **스포츠** | 코치로 인생 2막 여는 '우생순' 골키퍼 오영란
52 **생활공감** | '국민신문고' 불만 제로 서비스
54 **위클리 코믹스** | 4대강 살리기 ㉛
55 **이 사람** |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 지원하는 박상돈 의원
56 **알아두세요** | 수능 끝난 수험생 위한 '문화공감' 프로그램
57 **공감 카툰** | 파랑새를 찾아서
58 **걷고 싶은 길** | 경기 구리시 동구릉 숲길
62 **명사가 읽는 책** | 〈착한 사람 콤플렉스〉
63 **이한우 기자의 역사 읽기** | 조선의 공직자들 ⑦
64 **컬처 36.5** | 소리극 〈황진이〉


08


10

Weekly 공감

발행일 2009.11.2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37호(11월 18일자) 기획특집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분들이 공감과 격려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자 중 50.9퍼센트란다. 나도 30대로서 청년실업이 대단히 심각함을 피부로 느낀다. 대학 진학률이 82.1퍼센트인 나라에서 대학 졸업 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란 조금 과장하면 하늘의 별 따기다. 한 언론이 보도하기를, 대학 졸업 후 청년층의 괜찮은 일자리가 2000년 중반부터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취업이 안 된다고 청년층이 자포자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중소기업이나 해외로 눈을 돌려 먼저 취직부터 하고 나서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며 거래처나 회사에 인맥을 만들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청년들은 도전하고 부딪쳐야 한다. 젊은데 무엇이 두려우랴?"_ 이정희

"이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청년취업 희망자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 능력과 자질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국내에서 취업할 기회가 없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면 눈을 바깥세상으로 돌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도 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취업을 알선하며 취업훈련을 시켜야 한다."_ 우도형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식 스펙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도전정신과 창의성, 전문성과 더불어 진취적이고 열성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_ 우향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에 갓 진출하는 청년들의 취업인데 아직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우리 경제구조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기업들이 쉽사리 고용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청년들의 실업 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_ 우정렬

●● 〈Weekly 공감〉 37호 '한·칠레, 한·페루 정상회담 성과' 기사와 관련해 독자분이 부푼 기대감을 담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칠레와 남극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가 원활할 수 있었던 것은 FTA 체결 1호국이라는 그동안의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이며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서 이번 남극 개발과 광물 분야 협력 등의 성과에 국민들은 기대하는 바가 자못 크다."_ 유은경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알립니다

1 '효자동 사랑방'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청와대 전시홍보관 명칭 국민 공모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신축 중인 청와대 전시홍보관 '효자동 사랑방(조감도)'의 명칭을 공모한다. '효자동 사랑방'은 국내외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경복궁과 연계한 문화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수상작은 12월 초 선정, 발표한다.

공모 기간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응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작성 형식 자유(명칭과 의미를 간략히 설명)
표기 : 한글(영문 병기)
제출 방법 sinsun@seoul.go.kr
문　　의 서울시 관광진흥담당관 02-3707-9414



2 100만 일자리 창출 국민 아이디어 공모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로 100만 일자리 창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제안전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메시지 대상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미니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 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일자리 창출, 청년 · 여성 · 고령자 등 부문별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센터 등 고용지원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교육훈련과 더 좋은 일자리의 연계 강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대 상 개인 및 단체, 일반인, 공무원 불문
시 상 최우수상(1명 · 상금 3백만원),
우수상(3명 · 상금 각 1백만원),
장려상(10명 · 각 50만원)
접 수 11월 30일까지
방 법 공모전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해 홈페이지(www.jobidea.kr)에 등록
문 의 공모전 운영사무국 담당자 02-320-8828
발 표 12월 17일

공감 퍼즐

1			2	■	■
	■	■	3		
4		5	■	■	■
■	■	6	7		
■	8	■		■	■
9					■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6호(11월 1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일박이일 4 일자리 5 회복 7 지원 9 고취
세로 2 박람회 3 일일 6 복지 8 원고 10 취업

〈Weekly 공감〉 36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주연(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김찬희(강원 삼척시 원당동)
이재송(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최의진(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한상규(경기 화성시 신남동)

가 로
1. 건강도 챙기고 레저 · 문화 활동도 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 주로 선진국과 비교해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춘 아시아, 동유럽 등의 관광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3. 강원 강릉시에 속한 바닷가 마을. 항구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맛있는 해산물도 풍부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죠.
4. 일할 사람이 모자라 겪는 어려움. OOO 해소. OOO을 겪다.
6. 항바이러스제.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복용합니다.
9. DMZ. 이곳이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로
1. 남에게 어떤 일을 맡긴 사람.
2. 빛고을, 예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 대사 없이 리듬과 비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뮤지컬 퍼포먼스. 한류 상품입니다. 마구 두드린다는 뜻.
7.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생활 · 문화 수준이 낮은 땅. 미개척지의 줄임말.
8.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한국의 민속무용입니다. 혼자 추는 춤(獨舞)으로,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 · 동중정(動中靜)'의 진수가 잘 표현되어 높은 예술성을 평가받죠.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독자 ♥ 공감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숙(44) 씨는 한식뿐 아니라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고 있고 친환경 먹을거리에도 관심이 많아 피클과 장아찌도 집에서 직접 만드는 살림꾼이다.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 대책' '장기실종아동 찾기' '편의점에서 국세 내세요' 등 평소 잘 몰랐던 생활정보를 〈Weekly 공감〉을 통해 알게 되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Weekly 공감〉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습니까.

관공서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대기시간이 무료해서 잡지 코너에서 집어든 것이 〈Weekly 공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잡지는 으레 그렇겠거니 했는데 제목과 표지도 괜찮고 의외로 생활에 필요한 알찬 정보들과 좋은 기사들이 있어 계속 보게 됐습니다.

● 인상 깊었던 기사는.

잠비아 소년의 코리안 드림은 국내 거주 외국인 1백10만명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국제 원조가 빈약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그 외 여러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지금도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우수한 외국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모습이 미래에 우리와 그들이 함께 발전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외국의 원조를 받은 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우리도 가난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Weekly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괜찮은 행사나 축제 등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기사도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좋은 정보도 있었지만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시선과 의견을 실어 〈공감〉이라는 제호처럼 소통할 수 있는 잡지가 되길 바랍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마성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1. '헷갈리는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 통일' 기사가 반가웠다. '한국방문의 해'에 꼭 이루어져야 했던 사업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기쁘다. 김밥이나 떡갈이 만들기 쉬운 한식들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세계인들이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 본다.
2. '국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흥미로웠다. 워크넷과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반가웠다. 최근 고령화사회로 빚어지는 문제들이 많은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노동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겨울이 다가오면서 도시 및 농어촌의 빈민층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빈민층을 위한 월동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상세히 소개해주기를 바란다.

이금숙 강원 철원군 갈말읍

1. 마이스터고에 대한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마이스터고가 정확히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떻게 특화된 고교인지를 잘 알게 됐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고교인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업들도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함께 든다.
2. 취업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는 딸에게 이번 호 〈Weekly 공감〉을 보여주었다. "봐라! 나라에서도 이렇게 너희들 취업하라고 여러모로 힘쓰고 있단다. 그리고 이름난 곳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너한테 잘 맞는 데를 찾아봐라.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자세한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부터 해외취업에 관한 기사까지 정부가 청년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아무쪼록 나라에서 이렇게 힘쓰는 만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모두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됐으면 한다.
3.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제도와 좋은 장학제도에 대해 알려주었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25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관광부국 대한민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유등지.

자작나무 숲 사이로

글과 사진 · 이완규(사진가)

늦가을 깊은 산, 바람 한 점 없는 수면(水面)에 비친 자작나무 숲은 그 고요함으로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오바마 美 대통령 방한

北核 그랜드바겐 등 탄탄한 한미 공조 재확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11월 18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에 대해 지지 견해를 밝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11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서로를 반기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를 다짐하며 양국관계가 변함없는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1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기본 인식 공유를 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 일괄타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견고한 한미 공조를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시간10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이 그랜드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과 공동 접근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핵무기에 대한 해결책', 즉 그랜드바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8일 스

티븐 보스워즈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해 북미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해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데 대해 "자동차산업이 한미 FTA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에서도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하다는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왜냐하면 우리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FTA를 했다. EU에서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 수출하고 있다. 그런 나라와도 FTA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됐다"면서 "미국하고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양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한미 FTA가 극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논의도

두 정상은 또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6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기 위해 6·25전쟁 발발 60년인 내년에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나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2+2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하는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핵 비확산, 대(對)테러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첫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11월 18일 오후 한국에 입국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날 정상회담을 하고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다음 한국을 떠났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자동차 부문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은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면서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가 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한미 정상 직접 선물 전달

태권도복 vs 링컨 전기 화답

짧은 만남 깊은 교감.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짧은 만남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준 것은 두 정상 간의 선물 교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11월 19일 오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태권도복을 직접 증정했다. 원래 국가 원수에 대한 선물은 간접전달 방식이 의례다. 하지만 이번은 다소 파격적인 선물 전달이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선물로 받은 태권도복을 펼쳐 보인 다음 태권도의 '정권 지르기' 자세를 취하며 '답례'를 했다.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선물한 태권도복은 오른쪽 소매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교차한 문양이, 등에는 태권도란 문구와 함께 양국기가 새겨져 있으며 띠와 도복 상하의에 오바마 대통령의 영문 이름이 적혀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증정한 선물이 태권도복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태권도에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인 2001~2004년 태권도를 수련해 초록띠를 땄다.

이 대통령은 태권도복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문화재와 예술작품을 수록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도록〉과 한국 근현대 예술가와 작품을 소개한 〈모던 코리아 아티스트(Modern Korea Artist)〉 등 두 권의 도서를 선물했다. 또 김윤옥 여사는 오바마 대통령 내외에게 트레이닝복을,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는 별도로 한식 조리법과 한식 역사를 다룬 영문 책자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을 증정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작가 벤저민 토머스의 서명이 적혀 있는 링컨 전기 한정판과 아시아 순방을 맞아 특별히 제작한 유리 제품인 '오리지널 아시안 메이플 글래스 워크(Original Asian Maple Glass Work)'를 선물했다. 김윤옥 여사에게는 무궁화 모양의 '크리스털 글래스 플라워(Crystal Glass Flower)'를 선물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복을 선물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태권도의 정권 지르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동아DB





동아DB

우리나라는 DAC 가입국 중
국제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한 유일한 사례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40년간 성장 거듭… 세계 첫 사례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다.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원조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1969년 우리나라는 당시 돈으로 8백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다. 정부 예산 규모가 3천억원에 불과하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연명'했다는 표현이 적합한 대표적인 '수원(受援)국' 신세였던 셈이다. 이 돈은 각종 사업에 투입되면서 경제개발의 종잣돈 구실을 톡톡히 했다.

40년이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한 해 9천3백50억원(지난해 기준)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공여(供與)국'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11월 25일 우리나라는 원조사(史)에 한 획을 그을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회의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식 멤버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22개국이 가입된 DAC는 전 세계 대외원조의 90퍼센트를 담당하며 국제사회 원조의 규범을 세우는 국제포럼이다. 한국이 DAC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원조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한참 모자랐던 국제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 기준을 뒤늦게나마 맞추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국제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로 성공적 변신을 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조를 받은 대부분의 국가는 부패한 정치 환경 등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됐지만 한국만 그 수렁을 빠져나왔다"며 "국제무대에서도 원조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DAC 가입국 중 개도국 경험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살리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연결고리'라는 차별화된 역



동아DB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 액수는 1백27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백억 달러, 7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원국의 지위를 졸업했다.

한국의 국제 지원 확대는 개도국의 식량 부족과 질병문제 등에 대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보편적 의미와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도 있다. 단편적인 예로 6 · 25전쟁 때 한국에 군대를 보내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웠던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각각 8백95만 달러, 4백19만 달러, 1백33만 달러를 지원했다.

개도국 경험 있는 한국, 수원국-원조 공여국 연결고리 될 것

한국은 올해 DAC에 가입하고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데 이어 2011년에는 1백50여 개 공여국과 협력 대상국 정상 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위원회(HLF4)를 개최한다. HLF 회의는 3년마다 열리는 원조 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로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원조사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은 물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제 막 선진국 클럽에 턱걸이했을 뿐 ODA 규모나 국민 의식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제사회에 지원한 ODA는 8억 달러로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미국 2백60억 달러, 독일 1백40억 달러, 영국 1백10억 달러, 일본 93억 달러 등은 물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네덜란드(70억 달러), 스위스(20억 달러)보다도 적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지출 비율은 0.09퍼센트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ODA 기여액도 16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DAC 가입국 평균은 1백34달러다.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것은 아직까지 ODA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남을 도와주느냐"는 것이다.

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 지난해 외교통상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퍼센트는 "한국의 대외 원조가 국가 이미지 및 국제 지위 향상 등 국익에 기여한다"며 ODA의 취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현재 원조 규모를 늘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 수준 유지'(53퍼센트),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28퍼센트) 등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

우리나라 ODA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아직 선진국형 '받는 나라 중심의 원조'가 아닌 '주는 나라 중심의 원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향후 원조 금액을 돌려받는 차관 성격의 유상 원조는 최소화하고 무상 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1~2007년 DAC 회원국이 지원한 액수 중 무상 원조 비율은 87퍼센트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9퍼센트만이 무상 원조였다.

또한 ODA를 지원하면서 관련 물자나 건설업자를 자국에서 충당하도록 강제조건을 다는 방식인 '구속성 원조'의 비율도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인 김은미 이화여대 교수는 "어려운 나라를 돕는다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ODA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돈 쓰고 욕 먹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DB



ODA정책이 명확하게 정의된 원칙과 철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다수 DAC 회원국은 기본법이나 정책선언문으로 대외 원조정책에 대한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수년간 'ODA 기본법' 채택문제를 놓고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서로 다른 5건의 ODA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G

글 · 임민혁(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대통령 국제자문관 루이스 모레노 IDB 총재

"중남미 생태자원 · 한국 기술력 녹색성장 윈·윈 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자문관 남미 대표로 위촉된 루이스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는 한국이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의 열매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라는 것이다.


중앙일보

루이스 모레노 국제자문관 남미 대표는 한국과 중남미의 본격적인 협력에서 전령사 임무를 맡았다.

"향후 중남미와 한국의 경제협력은 녹색 분야가 주가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이 중남미의 녹색성장과 접목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자문관(Global Advisor) 남미 대표로 위촉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의 말이다. 모레노 총재는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녹색성장'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중남미와 한국의 녹색경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DB는 1959년에 설립된 중남미 최대의 개발은행으로 26개 수혜국과 22개 공여국 등 총 48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5년 3월에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2006년부터 3년간 IDB의 '빈곤감축 펀드' '지식협력 신탁기금'에 2억 달러를 제공했고, 앞으로 3년간 녹색성장 관련 협력사업 등에 20억 달러까지 협력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모레노 총재는 2005년 10월 IDB 총재로 취임하기 전 7년 동안 주미 콜롬비아 대사를 역임했으며, 대사 시절 미국으로부터 40억 달러에 이르는 대외원조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성사시켰다.

이 대통령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국제자문관 남미 대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대통령은 중남미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남미의 녹색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독창성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관련 기술력을 중남미 녹색성장의 잠재력과 연계하면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남미와 한국의 협력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을 꼽는다면.

우선 중남미에서 알려진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 들이라는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는 한국 기업들의 사인보드가 보입니다. 중남미 사람들은 그게 한국 제품인지도 모르면서 삼성 TV를 보고 현대자동차를 몰고 다닙니다. 어느 협력 사업이든 성공하려면 생활과 삶에 밀착돼야 한다는 예입니다.

IDB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빈곤감축 기금'과 '지식협력 기금'을 통해 도심 저소득층과 부녀자들을 지원하는 등 일반인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남미 간 녹색경협에 대한 '윈윈(win-win)' 전략은 무엇입니까.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이 향후 한국과 중남미 간 경제협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중남미는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 측면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통령이 가진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은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기후변화라는 21세기 과제 해소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가진 녹색성장 기술, 예컨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의 생산기술 등을 중남미 발전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내년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관해 조언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여부를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큰 질문은 '어떻게'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눈부신 성공의 과실을 이젠 글로벌 커뮤니티와 나눠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G

글 · 김정수(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한국경제 내년 성장률 OECD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올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은 올해 3분기까지 수출과 재정정책의 확장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OECD 보고서는 수출이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함께 우리 경제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4퍼센트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3.5퍼센트에서 0.9퍼센트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인 4.0퍼센트보다 높은 것은 물론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OECD는 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 2.2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2.3퍼센트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8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여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올해 플러스 성장을 예상한 국가는 30개 회원국 중 한국, 호주(0.8퍼센트), 폴란드(1.4퍼센트) 등 3개국뿐이다.

OECD는 11월 1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3분기까지 수출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된 국가 중 하나"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OECD는 또 한국이 2011년에는 4.2퍼센트 성장하고 2011~2017년 성장률도 4.5퍼센트에 이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지만 수출의 지속적인 개선, 내수 회복, 실업률 하락 등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중기 재정계획에 맞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실행하고 중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 가치가 급격히 절상될 경우 더블딥(이중침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둔화될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월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 9개 경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4.0퍼센트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고용 사정과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부진하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등 여러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비제조업 분야 구조적 개혁 필요"

한편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지난 6월 발표한 마이너스 2.2퍼센트에서 마이너스 1.7퍼센트로 올리고, 내년 성장률도 2.3퍼센트에서 3.4퍼센트로 높여 발표했다.

OECD 30개 회원국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3.5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인 뒤 내년에는 1.9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의 전망치는 올해 마이너스 4.1퍼센트, 2010년 0.7퍼센트였다.

OECD는 그러나 "가계부채 조정이 지속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이 서서히 종료됨에 따라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계경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상방 및 하방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받아

신종플루, 의료기관별 일일 접종가능 인원 확인해야

취약계층에 대한 신종 인플루엔자A(H1N1 ·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11월 18일 시작됐다.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우선 접수한 결과 이틀 만에 1백10만명이 접수했다. 이미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생들에게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 신종플루 확산 추세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DB

11월 11일 초중고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시작된 데 이어 11월 18일부터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 일정

접종 대상자	사전예약 개시일	접종 시작 개시일	접종 시 준비사항	접종 장소 (비용)
만 3세~미취학 아동	11.18	12.7	아기수첩 또는 건강보험증 등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1만5천원 동일) ※ 예방접종과 함께 다른 진료를 같이 받는 경우 진료비 추가
생후 6 ~ 36개월 미만 영 · 유아	11.23	12.7		
임 신 부	11.25	12.21	산모수첩	
만 18세 이하 소아 · 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포함)	12.2	12.16	건강보험증	
만성질환자(65세 이상 만성질환자 포함)	12.16	201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접종 안내문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12월 말 지역보건소 자체 홍보	2010.1.7 (예정)	지역보건소 추후 안내	보건소(무료) 위탁의료기관 (유료)

*위탁의료기관은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11월 18일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시작으로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노인 등 신종플루 취약계층 8백20만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예약을 접수한 지 이틀 만인 11월 19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 사전 예약자가 약 1백10만명이었다고 밝혔다.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1백9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상자의 57퍼센트가량이 예방접종을 희망한 셈이다.

취약계층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생후 6~36개월 미만 영·유아는 11월 23일 △임신부는 11월 25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포함) 12월 2일 △만성질환자(만 19세 이상 ·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포함)는 12월 16일에 사전 예약접수를 시작한다.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12월 7~9일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방접종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며,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은 12월 말부터 각 지역 보건소에

서 연락이 간다.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미취학 아동은 12월 7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12월 16일 △임신부는 12월 21일 △만성질환자는 2010년 1월 7일 시작된다.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의 경우 2010년 1월 7일로 예정돼 있으나 정확한 일자는 추후 지역 보건소에서 안내한다.

1차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만 8세가 넘지 않은 영·유아는 1차 접종 후 3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만 8세 이상은 1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접종 실시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전화나 방문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nip.cdc.go.kr)를 통한 온라인 예약 방법이 있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에는 접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가 필요하며 예방접종 시에는 대상자별로 아기수첩 또는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접종 안내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 · 전화 · 인터넷 접수 가능… 접종 안내문 등 지참해야

위탁의료기관별로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접종가능 대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예약해야 하며 일일 접종가능 인원이 제한돼 있으므로 일일 예약한도 초과로 예약이 안 될 경우 다른 날로 변경해 예약해야 한다. 의료기관별 일일 접종가능 인원은 의원 80명, 병원 1백10명, 종합병원 1백50명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매일 10만명분 이상씩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가 투약됐으나 그 이후 투약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외래 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자 수)도 10월 중순 이후 매주 1백 퍼센트 이상씩 증가하다 11월에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조기 예방접종을 실시 중인 초중고생 대상 예방접종은 11월 18일까지 전체 7백20만명의 초중고생 가운데 1백67만명이 접종을 마쳐 22.3퍼센트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전체 초중고생 가운데 예방접종 희망자가 6백20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희망자의 27퍼센트가 접종을 마친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에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주말 진료와 약국 영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들 중 3분의 1 정도가 주말 진료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며, 전국 2백53개 일선 보건소 역시 주말 비상근무를 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신종플루 콜센터 Tel **129, 1339**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nip.cdc.go.kr**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약 Q&A

Q 사전예약 시 나이를 정하는 기준은.

A 모든 사전예약에서 나이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신부는 접종 당일 임신 중인 여성만 예방접종 대상이 된다. 실제 접종 시기에 분만한 경우 접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약 당일 생후 5개월이라 하더라도 접종 당일 6개월이 지나는 영아들은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Q 신종플루 예방접종 온라인 사전예약 절차는.

A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예약 가능하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검색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은 다음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예약 당일 기준으로 2주 후 일정부터(접종시작일 이후) 예약이 가능하다.

Q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한 후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한가.

A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도 해당 위탁의료기관에까지 사전예약이 완료되므로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

Q 개인적인 사유나 접종 당일 몸 상태 등으로 인해 접종일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

A 개인 사정 등으로 사전 예약일에 접종받지 못한 경우 동일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추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변경하려면 예약한 병원에 취소를 요청하면 가능하다.

Q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 병원을 찾거나 전화로 하는 직접 예약에 비해 불리한가.

A 모든 신종플루 사전예약 시스템은 등록 순서대로 예약이 접수된다. 다만 병·의원별로 일일 접종 가능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 위탁의료기관 중에서 희망 일자에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Q 예방접종 시 준비사항은.

A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는 접종대상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후 6개월~만 18세 이하 중 의료기관 접종대상자는 아기수첩 또는 건강보험증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임신부들의 경우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수첩이 없을 경우 간이 임신테스트를 시행할 수도 있다.

Q 주말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한가.

A 접종일은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르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이 가능한지 문의한 다음 예약한다.


동아DB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접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임신부들의 경우 접종 당일 임신 중이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적십자사

기 · 획 특 · 집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자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종 인플루엔자A의 영향으로 세계 관광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올 들어 환율효과와 적극적인 관광경쟁력 강화정책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관광수지도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관광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의 활성화로 '행복한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 개개인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관광강국을 넘어 관광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정부는 드라마 '대장금' 등 한류문화를 비롯해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관광수지 9년 만에 흑자
관광 살리면 일자리 크게 늘어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희망산업으로 떠올랐다. 관광은 다른 업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효자 산업'이기 때문이다. 한류, 녹색, 의료, MICE(국제회의)로 대표되는 신흥 관광산업은 '행복한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적인 나라'를 만드는 발판이 되고 있다.

"꼬마야, 너 대장금 옷 입었구나!" "이벤트에 당첨되면 한국 여행 상품권 준대." "얼굴 예뻐졌네. 한국에서 쌍꺼풀 수술 했니?"

오가며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대만의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이다. 아시아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이처럼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외국인들도 우리 드라마에 매료돼 스스로 한국어를 익혀 배낭여행을 오고 있다.

모로코 출신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힌드 함라위(23) 씨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1년 전 우연히 인터넷을 서핑하다 비와 송혜교 주연의 '풀하우스'를 보고 한류 마니아가 된 함라위 씨는 한국과 한국인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올 여름 연세어학당 한국어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도 그는 한류 전도사를 자처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제 한국은 그들에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가 됐다. 바로 이것이 한류의 힘이다.

한류를 통해 한국에 호감을 느낀 외국인들은 드라마 촬영지와 좋아하는 배우의 팬미팅 행사를 찾아다니며 우리의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다. 덕분에 전국 각지의 드라마 촬영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했음은 물론이다.

관광 고용효과 IT산업 '5배'

그렇다고 한국에 한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녹색 관광지와 5천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문화유적이 곳곳에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국제행사를 열 수 있는 컨벤션센터와 시설 좋은 호텔도 여러 군데 마련돼 있다. 스킨케어, 미용성형, 치과, 안과 등 의료 기술도 선진국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들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한류, 녹색, 의료, MICE(국제회의)로 대표되는 신흥 관광산업은 다른 업종의 동반 상승을 유도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관광은 단순히 외화 획득 차원을 넘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한다. 관광산업에 10억원을 투자할 때마다 유발되는 취업 인원은 정보기술(IT)산업(10명)의 5배가 넘는 52명에 달한다. 관광산업이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구촌의 당면 과제인 저탄소 녹색 성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연 750만명 예상… 일본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할 것

세계 각국은 이미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쏟아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관광 유관기관 및 업체들이 협력해 2012년 해외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뛰고 있다.

정부는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광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남해안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환율효과와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올해 관광수지를 9년 만에 흑자로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전 세계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6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경쟁 국가들이 두 자릿수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9월 말까지 전년 대비 15퍼센트의 고속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관광수지를 9년 만에 흑자로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경쟁 국가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9월 말까지 전년 대비 15퍼센트의 고속성장을 기록했다.

김봉기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본부장은 "올해 목표치인 7백50만명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사상 처음으로 3백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광부국으로 거듭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단기적으로는 신종플루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가 관광산업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관광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전략과 외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



동아DB



동아DB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9월 말까지 전년 대비 15퍼센트 늘었다. 백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즐기는 관광객들(오른쪽).

관광 여건에 대한 안전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숙박, 교통, 통역, 음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업계 종사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3년부터 의료관광에 주력해온 KONC여행사 김용진 사장은 "정부에서 안전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관광객 유치업자들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손님을 맞아야 한다"며 "정부가 관광객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업자들에게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석기 관광산업실장은 "정부와 관광 유관기관, 관광객 유치업자가 각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관광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UNWTO는 아태지역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광 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9월 열린 TTG 트래블 어워드에서는 특별상인 올해의 목적지상을 한국에 안겨줬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될 한국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관광산업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한국 산업 전체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것, 아울러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한국'을 각인시키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실현해야 할 꿈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만나보니…

"김치… 소주… 氣를 받아갑니다"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원더풀 코리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이들은 한국의 멋과 맛을 통해 한국의 '정(情)'을 느꼈다며 또 한 번 한국을 찾고 싶다고 말한다.

낙엽들이 찬바람에 휘날리는 쌀쌀한 늦가을 날씨에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잠시 후 풍악소리가 울려퍼지자 의례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색색의 깃발을 높이 들고 걸어다니면서 수문장 교대식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 전통 궁중문화 재현 행사를 처음 보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Amazing(놀랍군)" "Wonderful(멋지네)" 등을 외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좋은 볼거리가 되고 있는 이 행사는 서울시가 1996년부터 재현해온 수문장 교대식이다. 평일, 주말 관계없이 하루 세 번 교대식을 재현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면 빼놓지 않고 구경하는 관광 코스로 손꼽힌다.

수문장 교대식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눈길을 끄는 것은 수문장들이 입는 옷을 무료로 입어볼 수 있는 복식 체험관. 한국에 처음 왔지만 한국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는 제프리(33·여행가·캐나다) 씨가 수문장 옷을 차려 입고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자 주위의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그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제프리 씨에게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느냐"고 묻자 "김치와 소주가 정말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그는 "한국에 온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가 본 한국의 장점은 이것보다 더 많다"며 싱긋 웃어 보였다.

"직업이 여행가이다 보니 자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특히 서울처럼 크고 국제적인 도시 안에 덕수궁처럼 멋스러운 고궁도 있고 남산처럼 예쁜 산도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부끄러워하지만 금방 친해질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수문장 교대식을 열심히 지켜보던 마할리(29·교사·프랑스) 씨와 앙헬리카(23·학생·콜롬비아) 씨도 "한국은 정말 볼게 많은 나라"라며 "잠시 머물고 떠나는 것이 아쉬워 장기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 안에 고궁·예쁜 산… "원더풀"

특히 마할리 씨는 벌써 20일째 부산 해운대, 광주 무등산, 보성 차밭 등 특색 있는 지방 도시를 다니며 우리나라 전국 일주를 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을 묻자 그는 단번에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를 꼽았다. 1박2일 정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템플스테이를 했다는 것이다.

"불교 신자도 아니고 한국어로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사찰에 있는 시간은 정말 좋았어요. 자연과 어울리며 조용하게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이런 문화는 프랑스에서는 경험하기 힘들거든요. 무엇보다도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모









두 친절하고 좋아서 한국 여행을 마치면 앞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앙헬리카 씨는 일정을 늘려 한 달 정도 한국에 더 있기로 했다. 그는 “여행하면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들과 12월에 강원도의 농장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며 다음 여행지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백41만8천2백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38.8퍼센트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쇼핑’이 54.9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여행 비용, 음식 탐방, 가까운 거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오면 쇼핑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은 덕수궁이나 인사동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서도 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레바논에서 왔다는 룰라(28·그래픽디자이너) 씨는 “한국의 패션문화에 관심이 많다. 명동과 동대문에서 저렴한 값으로 쇼핑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서울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구경하고 나면 마음껏 쇼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쇼핑이 한국 여행의 ‘백미’로 꼽히면서 이들이 자주 방문한 장소도 명동(46.6퍼센트), 동대문시장(40.5퍼센트), 남대문시장(38.8퍼센트) 등 대부분 쇼핑 명소들이 차지했다. 인상 깊은 방문지로도 역시 명동(27.1퍼센트)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 외 고궁(18.9퍼센트), 동대문시장(16.7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평균 기간은 5.9박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도, 러시아, 캐나다, 중동 등지의 관광객 체류 기간은 10박 이상으로 긴 반면 일본은 2.9박으로 가장 짧았다. 숙박시설은 대부분 호텔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유스호스텔과 게스트하우스의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년 전 독일로 이민 간 교포 김남권(33·의사) 씨는 “8년 만에 고국을 찾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찾은 홍익대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고 있다”며 “부대시설도 좋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 쉽게 친해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문화유적지 구경하고 쇼핑도 즐겨 일석이조

외국인 관광객들은 향후 3년 내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질문에 73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80퍼센트 이상이 주변의 지인들에게 한국을 여행하라고 권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들은 남아 있다. 언어소통이 불편하다는 점,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참사 같은 안전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내년부터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된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한 마음으로 한국의 ‘정’을 느끼고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동아DB

"한국 가면 예뻐진다"

로봇수술 등 의료·미용관광 세계 최고 수준

피부관리와 성형수술을 포함하는 미용관광에서부터 수술로봇을 활용하는 첨단 최소침습수술까지….
최근 발돋움하고 있는 의료관광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사는 여대생 양린(22) 씨는 두 달 전 한국을 방문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미지성형외과에서 망설이던 가슴확대수술을 했다. 이 병원에서 먼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친구 소개로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에 수술을 받은 양 씨는 하루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보고 다음 날부터 병원 인근 호텔에 머물면서 사후관리를 받았다. 가슴수술을 위해 총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다 귀국한 양 씨는 요즘도 e메일을 통해 병원 측에 가슴 관리에 대해 문의하거나 '수술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고 있다.

이미지성형외과 이홍기 원장은 "2, 3년 전부터 본토 중국인들이나 미국 거주 중국인, 혹은 일본인들이 주로 입소문을 듣고 우리 병원을 찾고 있다"며 "중국인의 경우 한국 성형수술이 비용은 중국보다 고가이지만 실패 확률이 낮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 일본인의 경우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한국 병원을 찾는다. 대개 처음에는 외국에서 수술받는 것을 망설이지만 막상 수술받고 나면 내국인들보다도 더 만족해한다"고 전했다. 이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중국어, 영어를 구사하는 간호사들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다.



동아DB

피부관리와 성형을 포함한 미용관광은 아시아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국 의료관광의 중심축이다.

실패 확률 낮고 가격도 저렴… 외국인 환자 늘어

최근 한류(韓流)에 큰 영향을 받아 아시아 여성들의 한국 미용관광이 늘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 주인공들을 미의 기준으로 삼아 한국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찾는 것을 꿈꾸는 것이다. 중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서 온 의료관광객들은 서울 명동과 강남의 성형외과 집중지역인 '뷰티벨트'를 찾고 있다. 부산, 인천 등 외국인 발길이 많은 지역에도 '프티(작은) 뷰티벨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학병원들은 최첨단 시설과 뛰어난 의료기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술비 등을 앞세워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까지 정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증을 발급받은 의료 기관은 1천3백1곳에 이른다.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에 이은 의료관광 비자제도 도입으로 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들이 크게 느는 추세다. 2007년 7천9백명에서 지난해 2만7천명으로 늘었고, 올 연말까지 5만명이 진료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 '미용 분야'의 대표 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곳이 아름다운나라 성형외과피부과다. 2000년 서울 명동에서 개원할 때부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까지 타깃으로 삼은 이 병원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7개 지점 외에 중국 베이징에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지점에만도 2007년 1천여 명, 2008년 1천3백여 명의 해외환자가 다녀갔다.

아름다운나라 성형외과피부과 이상준 원장은 "의료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정립되지 않아 한국 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아쉽다"면서 "정부는 국가 브랜드로서 홍보를 하고, 병원들은 한번 방문한 해외환자에게는 '2백 퍼센트' 만족시켜 한국 의료를 더욱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수술용 로봇 다빈치. 로봇수술은 고가의 첨단 수술로 외국의 부호 환자들이 선호해 세계 최고의 시술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병원들을 찾고 있다.

"건강관리산업은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의료 분야는 제2의 정보기술(IT)이 되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아름다운나라 성형외과피부과에 따르면 이들 '미용 관광객들'은 원정 수술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들이어서 약 일주일간 머물면서 미용성형 비용으로 1백만~3백만원을 쓴다. 그러고는 패션과 액세서리, 화장품 쇼핑 비용으로 그에 버금가는 돈을 지불한다.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의 시술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중병 진료다. 각 대학병원들이 특정부위 진료, 한방진료 등을 내세워 특화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시술을 앞세워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지의 부호 환자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방진료·로봇수술 등 일반 의료관광객도 꾸준히 한국 찾아

2007년 수술로봇 다빈치를 들여온 세브란스병원은 올 11월초까지 무려 3천2백 건의 시술 건수를 자랑하며 세계의 '로봇수술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갑상선암 로봇수술은 2년 만에 1천 사례를 돌파해 세계 최다 수술사례를 발표했다. 수술 부위 절개를 최소화하는 최소침습수술이 장점인 로봇수술은 갑상선암 이외에 대부분의 암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술비용이 선진국보다 저렴한 데다 시술기술까지 뛰어나니 로봇수술을 선호하는 외국 부호들이 한국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의 박찬신(44·내과) 교수는 "싱가포르 병원을 찾았다가 그쪽에서 치료를 못하고 우리 병원에서 완치가 된 외국 부호의 사례도 있다"며 "러시아나 중국 등 인근 국가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지역에서도 우리 병원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한국 의료관광의 확산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왕족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이 뜨면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코디네이터, 외국인 환자 통역 등 새로운 직종도 덩달아 뜨고 있다. 여러 단체와 학교 등에 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협회 신영훈 회장은 "우리보다 앞서 의료관광이 시작된 태국 등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휴양과 건강검진을 결합한 의료관광 상품의 인지도를 높였다"며 "우리는 우리의 강점인 미용성형을 '스타 종목'으로 키워 인지도를 높인 다음 다른 분야까지 의료관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넓게 보아 건강관리산업은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의료 분야는 제2의 정보기술(IT)이 되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세계 의료관광 시장 4천만명 대한민국 병원으로 오게 하자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해외홍보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확고한 의료관광 기반이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수십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낳는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의료관광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의료관광의 신흥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은 신속하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 발급과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도 연말까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과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부실 진료와 부실 알선을 막기 위해 의료 환자 유치 서비스 인증제 도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외


정경택 기자

최첨단 의료장비와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국내 병원들이 정부의 다양한 뒷받침 속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에 7백50만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재단 등을 활용한 현지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마케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연간 25개의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일본, 중동, 러시아 등 해외 홍보설명회도 지난 2월부터 추진해왔다. 필리핀, 미국, 중동, 싱가포르, 영국,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열린 의료관광 전문전시회와 컨퍼런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관광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예약까지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관광공사 내에 문을 열었다. 8월 26일부터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곳은 하루 4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부터 의료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코디네이터, 마케터, 통역안내사 등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성한 전문인력은 3백명에 달한다. 의료관광객 만족도 조사 및 시장별 전략 수립, 의료관광 브랜드 개발, 의료관광객 유치업자용 매뉴얼 제작도 추진되고 있다.

의료수준 매우 높지만 국제적 인지도는 약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의료관광 심포지엄,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부산국제의료관광 컨벤션, 내년부터 조성되는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와 메디컬 투어 스트리트, 서울 강남구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등은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도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한방건강관광타운 조성방안을 연구해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한방의료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박기남 사무관은 "한방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매력적인 분야여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방이 안고 있는 비표준화, 비계량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의료관광의 대표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은미 이사장은 "한방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이고, 치료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효과가 객관화돼 있어 의료관광 상품으로 제격"이라며 "특히 한방미용은 일본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11월 현재까지 의료관광업에 뛰어든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전국에 1천4백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병원이 갖춘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과 최첨단 의료장비, 선진국에 비해 우월한 가격경쟁력 등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어우러져 올해 5만명, 2013년 20만명, 2020년에는 1백만명의 의료관광객을 불러들일 전망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태국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라

양질 서비스 · 14개국 언어 홍보 등으로 의료관광 자리매김


동아DB

태국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휴양, 레저 등의 관광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아시아 최대 의료관광국으로 성장했다.

국경을 초월한 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시장조사 컨설팅 회사인 RNCO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05년 2백억 달러에서 2007년 2백76억 달러로 연평균 15.56퍼센트 증가했다. 또한 세계 의료관광객 수는 2005년 1천9백만명에서 2007년 2천5백80만명으로 연평균 16.5퍼센트 늘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국가 간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도 치열해졌다.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싱가포르가 의료관광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뒤를 쫓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헝가리, 남미에서는 멕시코가 신흥 의료관광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는 독보적인 의료관광국으로 자리매김한 태국과 싱가포르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의료관광국으로 꼽힌다. 1997년 수도 방콕에 있는 범룽랏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의료관광을 시작한 태국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 관광자원을 결합해 급성장을 이뤘다. 여기에는 태국 정부의 의료관광정책이 뒷받침됐다.

태국 정부는 2004년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헬스케어, 약초상품의 세 영역에 집중해왔다. 병원들도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진료비를 낮추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받은 범룽랏병원의 경우 14개국 언어로 의료관광을 홍보한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의료관광국인 싱가포르는 수준 높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JCI 인증병원 최다 확보, 국가 주도적 의료관광 추진 등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싱가포르의 의료 인프라와 임상 수준은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에 못지않다. 1만 개가 넘는 병상을 갖춘 대규모 의료 네트워크와 환자 가족을 위한 호텔 수준의 서비스도 의료관광객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요소다.

또한 인도의 경우 2004년 15만명에서 2007년 27만여 명으로 의료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의료관광국으로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의 8분의 1 수준인 저렴한 진료 비용과 함께 아유르베다, 시드하, 유나니, 자연요법 등의 독창적인 상품은 인도 의료관광이 내세우는 최대 강점이다. 이 밖에도 풍부한 전문 인재풀과 영어 소통 기반을 갖춘 인도는 2012년 84만여 명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미용관광 넘어 중병 진료 목표 삼아야"

한국과 미국의 의사면허를 동시에 지닌 국내 유일의 외국인 의사인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오랜 외국인 진료 경험을 가진 그는 한국 의료관광 산업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의료관광보다는 '외국인 환자를 맞기 위한, 혹은 외국인 진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적확한 말입니다."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50·본명 존 린튼) 소장은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이란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역설적인' 충고를 내놓았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인 소장은 1991년부터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맡아왔다. 4대를 이어 한국에 봉사하는 미국인 선교사 집안 출신인 그는 15인승 승합차량을 개조해 한국형 구급차를 만드는 등 한국의 응급의학 체계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최근 의료관광과 관련해 각종 포럼 참석과 강연 등을 해오고 있다.

인 소장은 "한국의 의료관광은 미용관광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살릴 수 있고 부가가치도 높은 중병 진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 의료의 장점으로 '쇠젓가락'을 들었다. 웬 쇠젓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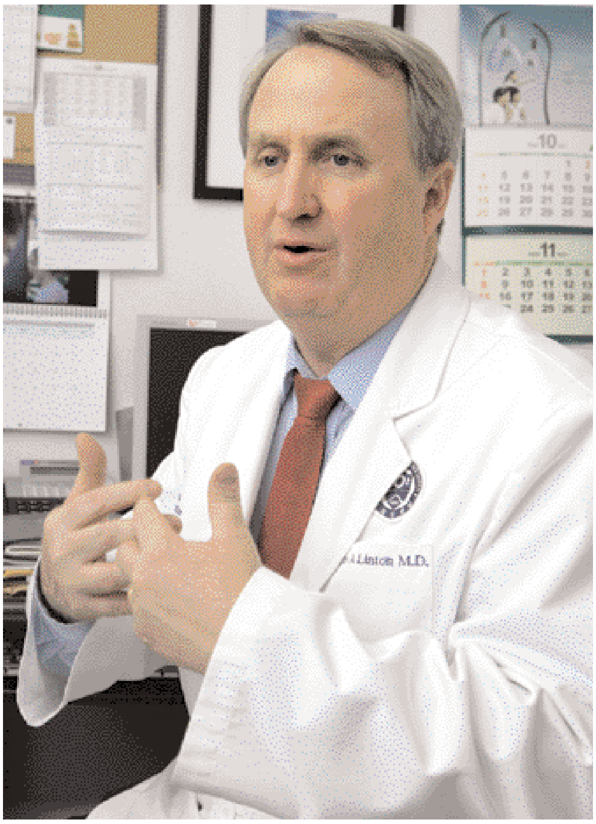
"중국이나 일본도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무거운 쇠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니 한국 의사가 일본이나 중국 의사보다도 손재주가 월등하죠."

게다가 한국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좋고 '한울타리' 아래 엄청난 최신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세브란스병원에는 최소침습수술을 위한 고가의 수술용 로봇 다빈치가 7대다. 일본은 다빈치가 총 3대, 한국은 아시아에서 다빈치가 가장 많은 나라다. 그런데 핵심은 '기계'가 아니다.

한국서 산 시간 더 긴 '순천 토박이'

"미국에서는 다빈치 수술 한 번에 12시간 수술방이 묶여요. 반면 우리 병원에서는 건당 평균 4시간 걸립니다. 미국이 하루에 한 건 수술을 하면 한국은 3건을 하니 효율성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는 거죠."

인 소장은 "한국의 의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환경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경제력은 있지만 자국의 의료 수준이 낮은 나라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의료비가 저렴해야 한다. 셋째, 누구 하면 금방 알 만한 의료계의 스타가 있어야 한다.



인요한 소장은 한국의 의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급' 의사 양성과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쉽게 오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 소장은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부족한 것이 '브랜드 의사'"라며 "미국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파격적인 서비스로 인지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한국 의료관광도 스타 의사를 통해 '브랜드'로 정착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파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미국에서 산 것보다 훨씬 길다는 인 소장. 인터뷰 내내 전라도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왔다. 자신의 고향 순천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우기는 '푸른 눈의 순천 촌놈'인 인 소장은 "의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사람을 우선 섬겨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일단 외국에서 환자가 한국 병원에 와야 합니다. 외국 환자가 한국 병원 문턱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지금은 거의 '그랜드캐니언을 건너는 수준'입니다. 이 과정이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정부 www.mosf.go.kr/hope



정부는 적은 인원을 수용하더라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국제회의, 컨벤션 등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지난 6월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09 허벌라이프 아시아 태평양 엑스트라베간자' 행사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의 2만여 회원이 참석했다.

국제회의는 관광산업의 꽃 G20 개최 절호의 기회가 왔다

국제회의와 세계박람회, 기업연수 등을 유치해 고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MICE 관광'이 한국 관광산업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6백여 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3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MICE산업의 혁명적 성과로 보고 있다.

'깃발부대'로 일컫는 단체관광객의 빈자리를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채우고 있다. 이름하여 'MICE 관광'. MICE는 미팅(Meeting), 인센티브(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연결어로 국제회의와 각종 전시회, 기업의 인센티브 여행을 포괄하는 신조어다.

세계적으로도 통용되지만 한국이 MICE와 관광의 연결 산업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제회의나 박람회 등 참가자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해당 국가를 관광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MICE는 한국 관광의 틀을 바꿔 놓았다.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쓰는 비용은 일반 관광객의 두 배 이상이다. 물밀듯이 고궁으로 밀려갔다가 쇼핑몰로 몰려드는 형태의 관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들은 숙소부터 특급호텔을 선호한다. 숙소와 회의 참가비는 단체에서 지원하고, 추가로 주어지는 관광 시간에 여유 있게 자신의 예산을 쓴다. 이들은 비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관광객들이다.

지난해 국제회의 목적으로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은 총 12만 11명이다. 또한 총 6백34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제회의 개최국가로 떠올랐다. 성장률이 전년 대비 39퍼센트다.

지난해 634건 유치 · 12만여 명 한국 다녀가

국제회의에서 서울의 경쟁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쟁력 면에서 한국은 국제회의 개최국가 중 세계 12위인 점에 반해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중 7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의 MICE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아시

동아DB

아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현황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2백16건을 유치했다. 중국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한국은 국제회의 개최지로 매력적인 요소를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및 컨벤션과 관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김건수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 본부장은 "한국 관광의 기본 틀이 'MICE'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가적 목적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 싱가포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회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컨벤션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최고 자리에 올랐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제회의나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많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에 흩어져 있어 교통편과 숙박 등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아DB



11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9 한 · 중남미 고위급 포럼'. 지난 10월 말에는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이 개최됐다(왼쪽).

"입국인 대비 지출 커 관광산업 새 돌파구 될 것"

한국관광공사는 이에 따라 MICE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MICE 동맹(MICE Alliance)'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을 수립했다. 김건수 본부장은 "국제회의와 컨벤션만이 아닌 다양한 MICE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치전을 펼칠 것"이라며 "MICE 동맹 준비위원장으로 장관급의 책임 있는 인사를 선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MICE 동맹은 국제회의나 박람회를 준비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 교류를 돕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관광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회의와 박람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중요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MICE 동맹에서 하는 일이다.

MICE 관광은 미팅(Meeting), 인센티브(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연결어로 국제회의와 각종 전시회, 기업의 인센티브 여행을 포괄하는 신조어다.

한국은 이미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해놓고 있다. 내년에도 세계소방관대회, 세계조리사회 총회, 세계뇌졸중학회 총회 등 굵직한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날짜가 결정된 회의만 20개가 넘는다.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회의나 박람회, 인센티브 관광을 위한 매력적인 개최지임을 다시금 인식시켜야 한다.

최근 지자체에서도 국제회의와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MICE산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사업을 한다. 김 본부장은 "한국관광공사의 목표는 우리나라 MICE산업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MICE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회의와 관광을 연결하는 일은 김 본부장의 역할이다. 김 본부장은 한국관광공사에 첫 발을 들인 1980년부터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회의와 컨벤션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에서 국제회의와 관광의 접목 지점을 목격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개최한 국제회의 6백34건 중 2백60건은 호텔에서 열렸다. 전체의 41퍼센트다. 컨벤션센터나 전문 전시장에서는 2백15건으로 33.9퍼센트의 개최율을 보였다. 즉 호텔과 컨벤션센터에서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MICE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주요 개최 장소인 이들 호텔과 컨벤션센터에 대한 정비는 필수다.

김 본부장은 "다양한 국제학술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의 지출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관광이 질적으로 전환하는 지점이 바로 MICE"라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의 지적을 종합해볼 때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MICE산업의 중심축이 된다면 비록 입국 관광객 수가 많지 않더라도 관광대국으로 성장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성장산업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 뒤에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한 한계도 숨어 있다. 한국 관광이 질적 '터닝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는 전체 관광객과 관광수익의 30퍼센트를 국제회의에서 벌어들인다"며 "국가적으로도 관광정책 예산을 MICE에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G

글 · 김성배(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외국인이 가고 싶은 곳 1위 'DMZ'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만든다

정부는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며 저탄소형의 지속가능한 생태녹색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사 비무장지대(DMZ)의 관광자원화 사업, 폐선 철로와 간이역의 관광 명소화 사업,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한국의 생태관광지 10곳을 선정 발표한다.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놀러 온 제이콥 크레거(26) 씨는 10월 8일 하루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 투어를 다녀왔다. 크레거 씨가 돌아본 코스는 서울에서 출발, 경기 연천군 열쇠전망대에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철책선을 따라 나란히 걷는 길이다. 이곳은 국내외 관광객이 유일하게 철책선을 따라 걸을 수 있는 DMZ 구간으로 거리는 1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철책선 안쪽으로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체험할 수 있다.

DMZ관광



지난해 여름 경기 연천에서 철책선을 따라 걷는 외국인 관광객들. 지난 한 해 DMZ를 다녀간 외국인은 76만3천6백60명으로, 안보관광과 생태관광을 겸한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생태녹색관광은 외국인들 사이에선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에코 투어리즘, 그린 투어리즘, 지속가능한 여행 등 '생태'와 '녹색'을 앞세운 여행이 붐을 이루고 있다. 2004년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생태관광이 1990년대 이후 매년 20~34퍼센트 성장해 다른 관광보다 3배 이상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영국의 여행 전문지 〈트래블 위클리〉는 2012년까지 생태관광이 세계 관광시장의 25퍼센트를 점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4년 기준으로 생태관광이 세계 관광시장의 7퍼센트를 차지하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의 성장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외래 관광객 대상 생태관광의 경제적 가치는 외래 관광객의 5퍼센트인 50만명, 관광수입 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홍성운 사무관은 "한국에서도 소득 증가와 주5일제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 트레킹, 문화생태 탐방로 걷기 여행, 갯벌과 연안생태 관찰 여행 등 생태녹색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한다.

연말까지 생태관광지 10곳 선정 발표

생태녹색관광은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을 합친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생태관광은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녹색관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형태'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윤종석 과장은 "최근에는 녹색관광을 생태관광이 포함된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수립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는 생태관광을 위한 녹색성장 계획이 포함돼 있다.

생태녹색관광은 관광자원 유형별로 크게 △국립공원, 갯벌, DMZ, 세계자연유산 등 생태관광자원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자원 △천연기념물, 민속마을 등 문화관광자원 △슬로시티 등 생활관광자원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산, 강, 습지, 섬 등지를 생태관광지 30선으로 발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적 특성이 독특하고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생태관광지 10곳을 선정해 올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동아DB



국내에는 11개의 람사르 습지(물새 서식지)가 등록돼 있다. 사진은 면적이 1백7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인 우포늪.

"DMZ 관광은 안보관광 상품으로만 안일하게 승부를 걸 수 없다. DMZ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중 · 장기적으로 만들어 생태체험 관광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생태관광 안내 브로슈어.

설치된 생태관광 컨설팅단에서 생태관광지 선정과 홍보 마케팅 방안, 친환경 관광 인증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태관광 사업 가운데 현재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DMZ의 관광자원화 사업, 폐선 철로와 간이역의 관광 명소화 사업,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DMZ와 3개 시도의 10개 시군에 걸친 접경 지역을 PLZ(Peace Life Zone), 즉 평화 · 생명지대로 명명하고 관광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북 분단과 대치의 공간이 아닌, 청정 자연이 잘 보존되고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자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까지 PLZ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5천5백16억원을 들여 3개 시도에서 37개 사업을 시행한다.

이 중에는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강화 평화전망대까지 7개 구간을 횡으로 잇는 총 5백45킬로미터의 테마횡단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주요하다. 또 연천의 물범 생태관찰센터, 철원의 두루미 생태관찰학교, 양구의 자연생태치유마을 등 생태체험 코스도 다양하게 개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박상희 주무관은 "PLZ에는 6개의 강과 1개의 평야, 2개의 산맥이 걸쳐 있으며, 산악지대부터 평야, 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생태 관광지"라고 추천했다.

2003년부터 외국인 대상 DMZ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DMZ관광의 장승재 대표도 "DMZ 관광은 안보관광 상품으로만 안일하게 승부를 걸 수 없다. 양구의 국립DMZ자생식물원, 화천의 DMZ평화 · 생태체험특구 등을 연계한 DMZ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중 · 장기적으로 만들어 생태체험 관광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DMZ 등 접경지 평화 · 생명지대로 개발 관광자원화

폐선 철로와 간이역을 관광 명소로 바꾸는 사업도 활발하다. 철도 개량사업으로 인해 폐선된 철로는 10개 노선 1백65개 구간, 폐간이역 중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보호하고 있는 곳은 23개 역이다. 이 중에서 올 연말 일부 구간과 역을 우선 사업지로 선정해 내년부터 리모델링을 통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 폐선 철로 구간 4~6곳에는 레일바이크, 자전거 도로, 기차 펜션, 관광열차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폐간이역 4~6곳에는 전시실, 박물관, 휴게시설, 스튜디오, 전통찻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스토리가 있는 문화탐방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약 1천2백킬로미터를 걷기 위한 길로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7개 길(3백47킬로미터)이 탐방로로 조성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다. 강화 나들길, 남한강 여강길, 동해 해안 트레일, 소백산 자락길, 박경리 토지길, 고인돌 질마재길, 정약용 남도유배길이 그것이며, 짧게는 31킬로미터에서 길게는 64킬로미터 구간이다. 이 길들은 옛길과 순례길의 역사문화형, 소설 배경의 예술문화형, 마을길과 농로의 생활문화형으로 나뉘며, 각 길에서 탐방 프로그램, 여행학교, 도보인증서제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친환경 복합도시 새만금 녹색관광지로 도약한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연결하는 대규모 방조제 간척사업으로 세계 최대 길이(33킬로미터)이며 그 면적은 4백1제곱킬로미터다. 서울 면적의 70퍼센트, 프랑스 파리 면적의 4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이 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 토지의 용도를 농지 위주에서 다목적 복합 용도로 전환하고, 이 가운데 육지부 2백83제곱킬로미터의 23.8퍼센트인 67.3제곱킬로미터를 산업과 국제업무, 관광레저 기능이 어우러진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2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3개의 디자인 안이 제시됐으며, 전문가 자문과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연말쯤 종합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명품 복합도시 중 17.1제곱킬로미터가 환경생태 용지로 조성되며, 어느 디자인 안이 채택되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질 보전과 방풍, 바람의 통로를 확보하는 친환경 계획이 포함된다. 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고,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바람의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육지보다 3배 정도 강한 겨울 북서풍을 막기 위한 녹지와 생태 습지도 확보할 계획이다. 새만금 1단계 사업은 2010~2020년에 간척지 전체 면적의 84퍼센트가 개발되며, 2021년부터는 나머지 부지가 개발된다.

벽안의 운수납자를 꿈꾸다

〈碧眼〉 〈雲水衲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 각광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사찰에서의 하룻밤. 정갈한 마음으로 올리는 새벽 예불과 백팔배, 그윽한 명상과 자신의 내면 마주하기….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인 템플스테이(Temple Stay)가 어느덧 한국의 대표 관광 상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1 "저는 역사와 문화, 종교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에 흥미가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불과 백팔배는 아주 인상적인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잘 도와주고 챙겨줍니다.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사찰 생활에 대한 (첫)인상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I'm interested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history, culture and religions. The sunday morning prey and 108 bows are very impressive experience. The people are very friendly, helpful and supportive. The time was very short, but still I got a (first) impression about the temple life ….

2009년 8월 서울 구기동 금선사 템플스테이 참가자

#2 "…사찰은 아주 평화롭고, 특히 아침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좀 더 자주 명상을 하도록 고무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자신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고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The temple is very peaceful, especially in the morning. I feel inspired to meditate more often. I will also look within and focus my mind. I think it was a rewarding and inspiring experience. I would recommend it to my friends.

2009년 11월 부산 청룡동 범어사 템플스테이 참가자



동아DB

먹고 자고 쉬는 모든 일상(日常)이 도(道)라는 불교 진리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하는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발우공양을 하기 전 발우를 높이 들고 오관게(불교에서 식사 하기 전 하는 기도문)를 외우고 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템플스테이닷컴(templestay.com)에 실린 외국인들의 템플스테이 체험 후기들이다.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은 템플스테이는 절집에서 자고 생활하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갖는 마음의 여행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2008년 12월까지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은 11만2천8백여 명. 이 중 외국인은 2만1백6명이다. 올해도 10월 말 현재까지 11만9천7백84명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은 1만6천9백65명이다. 전체 참가자의 14퍼센트가량이 외국인인 셈.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2004년 이후 매년 30~40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국 사찰 약 1백 곳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잘 알려진 곳 중 하나가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월정사다. 오대산 자락에 있는 월정사는 일본 여행사 JTB가 펴내는 여행 가이드북 〈루루부〉 등에 소개되고 외국인 체험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곳이다.

월정사 템플스테이의 가장 큰 특징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이 언제 한국에 도착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 영어와 일본어가 가능한 진행자가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월정사 연수국 김은미(41) 연수팀장은 "서양 관광객들은 명상과 요가에 관심이 많고 스님과 차 마시는 시간도 매우 좋아한다"고 전했다.

편리한 숙박시설 · 참선 체험시설 확충 등 필요해

템플스테이의 성공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 불교의 '관광상품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막힌 곳이 산중 사찰 아닌가.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인데, 불교 사찰은 대부분 산중에 자리 잡았다. 그곳은 자연과의 조화를 최고의 희열로 삼던 선조들에게 자연과 인간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깃들여도 편안하고 또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최고의 장소다.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지의 불교 사찰은 우리 것과 다르다. 노란 색 법의가 그렇고, 독한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향불은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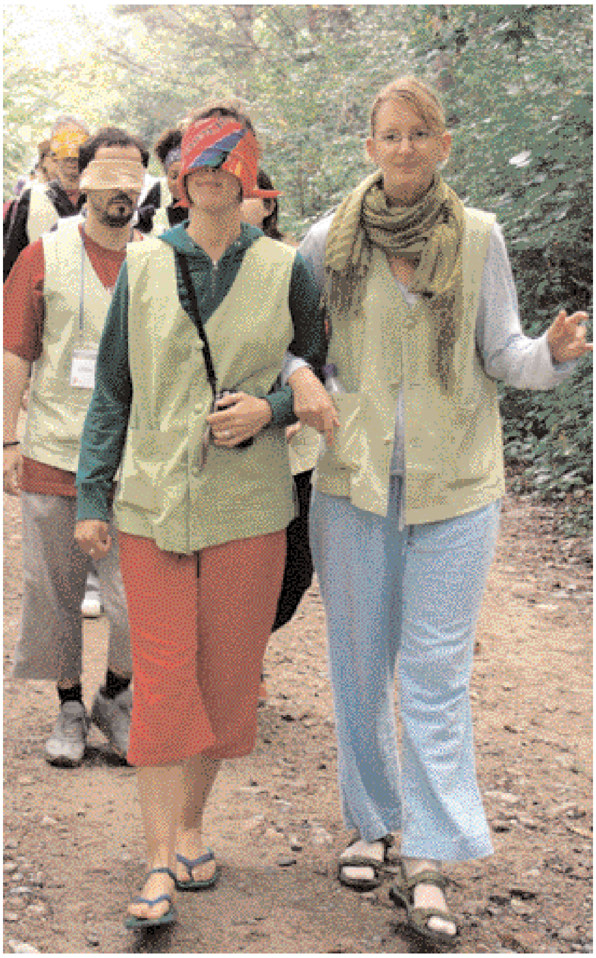
그에 비하면 우리 불교는 청징하다. 출가 후 속세를 등지고 산중 사찰에 머무는 것도, 채식만 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까지. 잿빛 먹물 옷에 발우 넣은 걸망 하나 짊어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눈빛 밝은 운수납자(雲水衲子·스승을 찾아 도를 묻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스님)를, 면벽 1년의 고된 선(禪)수행에 용맹정진하는 선방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곳도 한국이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한국의 스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다.

올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멋진 리포트를 냈다. '각국 주요 관광지의 매력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자원의 역할'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템플스테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와 관광의 성공적 결합 사례로, 또 민간과 정부의 조화로운 협력, 그리고 외국인에게 한국과 불교를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OECD 보고서는 편리하고 깨끗한 숙박시설, 참선 체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템플스테이에서 만난 모든 외국인의 한결같은 지적도 이 두 가지다. 특히 참선 체험에 대한 갈증은 훨씬 더했다. 이들에게 한국의 산사는 그들이 동양에서 줄곧 찾아온 지고의 선, 즉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만능키'로 비친 듯했다. 그들은 산사 체험에서 좀 더 선(禪)적인 것에 다가가고 싶어 한다. 비록 체험 수준이라도. 물론 1박 혹은 2박의 짧은 일정으로는 언감생심이다. 게다가 절집 풍속을 보여주고 가르치려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선 체험은 멀어진다. 이 부분이 보완해야 할 숙제다. G

글 · 조성하(동아일보 여행전문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Tel 02-2031-2000



동아DB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줄 열쇠 찾기를 고대하며 참선 체험을 갈구한다.

시원 프린스·욘사마·지우히메… 남이섬·자라섬·안동 하회마을…

韓流

2000년대 초반 드라마 열풍으로 시작된 한류(韓流)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뿐 아니라 한국 관광산업을 일구는 데도 한몫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유명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연예인 팬미팅과 사인회 등을 찾으면서 좋아하는 한류문화 추억도 쌓고 여행도 즐길 수 있다.



강원도청 제공

강원도는 한류 콘텐츠를 이용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 관광 상품을 준비했다.

지난 9월 말, 일본인 하루코 미야세(40) 씨는 아주 특별한 2박3일을 한국에서 보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 류시원의 팬 미팅과 더불어 경주, 포항, 안동 등 경북지역 주요 관광지를 답사하는 한류 관광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일본, 중국, 대만 등 7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이 함께한 이 행사는 류시원의 생일을 겸한 팬 미팅 행사로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경주에서 진행됐다.

미야세 씨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번 여행에 든 총경비는 1인당 1백50만~2백만원. 보통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포함한 자유여행 경비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눈앞에서 만날 수 있고, 그와 관련한 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류 콘텐츠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반가운 관광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다.

이 행사에 참여한 미야세 씨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은 "최근 류시원이 출연한 드라마 '스타일'에서 그가 입었던 의상과 차량을 구경할 수 있는 데다 그의 고향인 안동 하회마을까지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이런 한류 관광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류 스타·드라마 촬영지 등 관광 코스 인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행사는 한류문화를 통해 경북 관광의 브랜드 파워를 해외로 확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드라마 '선덕여왕'의 주요 촬영지인 경주 밀레니엄 파크 등 한류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를 활용한 제2의 한류 붐 조성을 위해 대형 한류 관광 이벤트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한국 배우와의 만남이 결합된 패키지여행 프로그램뿐 아니라 인기 한류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여행을 다니는 관광 코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이다. 매년 평균 15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드라마의 인기가 절정이던 4년 전만 해도 하루 평균 1천여 명이 찾았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

경북도청 제공



가평군청 제공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의 팬미팅 현장, 촬영장, 드라마 제작 보고회 등을 찾아 한국 관광까지 겸하고 있다.

쳐났다. 남이섬 외에도 드라마 '대장금'의 경기 양주시 대장금 테마파크,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경기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드라마 '주몽'의 전남 나주시 삼한지 테마파크 등 한류 드라마 촬영지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번쯤 들르는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다.

한류 통한 지속적 관광 상품 개발에 힘써야

여기에 요즘 떠오르는 또 다른 한류 드라마 촬영지들이 있다. 1, 2년 사이 대작 드라마가 없어 잠시 주춤했던 한류 드라마의 인기를 다시 지핀 블록버스터형 드라마 '아이리스'와 사극 드라마 '선덕여왕'이 그 주역들이다. '아이리스'는 한국에서 방영되기도 전에 일본 TBS 방송국에 선(先)판매돼 일본 팬들의 기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작품이다. 특히 주연 배우 이병헌의 인기가 높아 그가 촬영했던 경기 가평군의 '자라섬'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부쩍 많아졌다.

지난 10월 말부터 일본 후지TV 위성채널을 통해 일본에 방영되는 드라마 '선덕여왕' 역시 인기를 끌자 촬영지인 경주시의 밀레니엄 파크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에 드라마 '선덕여왕'을 좋아하는 일본 팬들을 위해 '선덕여왕 OST 콘서트' 행사를 12월 5일, 2박3일 일정으로 열 예정이다.

또한 한류 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결혼 관광 상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강원도 관광마케팅사업본부가 남이섬, 설악산, 평창 등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우리 결혼해요'라는 결혼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한류 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결혼 관광 상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예비부부들이 남이섬에서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처럼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며 결혼사진을 찍었고, 춘천 시내에서 빌린 한복으로 한국 전통 부부의 모습도 연출했다.

11월 초에만 벌써 1백여 명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예비부부들이 남이섬에서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준상과 유진처럼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며 결혼사진을 찍었고, 춘천 시내에서 빌린 한복으로 한국 전통 부부의 모습도 연출했다. 앞으로 11월에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인 커플 30쌍이 남이섬과 설악산 등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올 예정이다.



동아DB

위방희 강원도 관광마케팅사업본부 담당자는 "동남아시아에서 사랑받는 한류 콘텐츠를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수입 확보는 물론 지역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한류 관광의 재점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2003년부터 한류를 한국 관광 마케팅 주제로 활용해 한류 스타의 관광 홍보대사 임명 및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해외 현지 관광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업계, 방송사, 방송 콘텐츠 제작사 등 업체 및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한류관광협의회를 지난 7월 발족해 한류 관광 소재와 장르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한류 관광 전문가들은 한류를 통한 지속적인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승일 한류전략연구소장은 "한류 붐은 한류 스타와 한국을 향한 선망을 낳아 국가 이미지도 개선해준 고마운 선물"이라며 "이런 한류 문화에 대한 지지에 힘입어 '1초 관광지'가 아닌 '10분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 드라마 촬영지에 그 지역의 특산물, 관광지 등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더한 스토리가 있는 한류 관광 상품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한류 스타를 만나러 온 관광객일지라도 한국의 다른 매력들을 알려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는 여행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멀리서 찾아온 손님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국방문의 해 3개년 사업 본격 추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한국을 경쟁력 있는 관광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의 목표는 2012년 외래 관광객 1천만명, 관광수입 1백30억 달러, 국제 관광경쟁력 순위 20위권 진입이다.

"외곽으로 나가면 교통편이 불편해요." _ 존 · 30 · 뉴질랜드
"간판이 한국어로만 돼 있어요." _ 히토시 · 24 · 일본
"한국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하고, 흑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_ 바비 · 33 · 미국



한국을 찾는 관광객 10명 중 6명이 쇼핑 관광객이란 점에 착안하여 주요 대도시에서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시행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말하는 불편사항들이다. 이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외국인 대상 국민 환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발족한 대학생 서포터스 '미소천사'가 제작한 손수제작물(UCC)에 외국인 관광객 인터뷰로 소개됐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소하는 불편함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WEF · 일명 다보스포럼)이 세계 1백33개국을 조사해 발표한 '관광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 친밀도(외국인에 대한 국민 환대 태도, 관광 개방성)는 1백15위로 꼴찌에 가깝다.

그에 비해 전체적인 국제 관광산업 경쟁력 순위 상승은 고무적이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경쟁력 순위는 31위. 2007년의 42위에 비해 11계단이 올라섰다. 다른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10위), 홍콩(12위), 일본(25위)보다는 뒤지며, 중국(47위)보다는 앞서는 순위다.

특히 한국 관광경쟁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인적, 문화적, 자연적 자원 부문' 순위가 크게 올랐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 2007년 이 순위가 73위에 머물렀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26위로 무려 47계단 상승했다. 이는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에 대한 관광상품화와 한류 열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광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국제 관광경쟁력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이하 한국방문의 해)' 3개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은 2012년 외래 관광객 1천만명, 관광수입 1백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세계인들이 한국을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설립된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성공적인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공동 선포식, 해외 공동 글로벌 마케팅, 국민 환대 서비스 등 10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외 남해안 지역 11개 공공 · 민간 기관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위원회 명예위원장, 배우 배용준 씨를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한 데 이어 올해는 김연아 선수와 뽀로로 캐릭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 최근에는 음식, 문화예술, 관광을 연계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한식세계화추진단 3자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가 3년 동안 추진하는 4대 주력 사업 분야는 △외국인이 한국에 도착해서 돌아갈 때까지 환대 서비스 개선 캠페인 △실제 신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해외 홍보마케팅 △한국 방문 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제공 △고품격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 개최다.

"당신의 미소를 선물하세요" 국민 환대 서비스 개선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중 취약 분야인 관광 친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환대 서비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위원회는 국민 공모로 당선된 한국방문의 해 슬로건인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를 공익광고,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널리 알

려 환대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

타깃별 맞춤교육도 시행된다. 외래 관광객을 응대하는 관광업 종사자, 일반인, 청소년 등 대상별로 글로벌 에티켓, 친절 아카데미 등 환대 교육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가칭 '미소 국가대표' 라는 대학생 서포터스를 뽑아 운영하며, 손수제작물(UCC)·포스터·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해외 각지에서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지난 10월 13일 일본 도쿄돔에서는 일본인 관람객 4만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방문의 해 일본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배우 배용준 씨는 2010년에 위원회가 주최하는 세계음식관광축제와 한식의 매력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관광을 홍보했다.

11월 24~25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방문의 해 중국 선포식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여기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가수 장나라 씨, 중국 가수 치웨이(戚薇)가 참석한다. 이들은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열리는 한류축제, 세계음식축제 등과 같은 다양한 특별 이벤트와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의 관광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고 한국과 한국 관광의 매력, 멋과 맛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류 스타를 해외여행 사이트, 유튜브 등에 한국방문의 해 온라인 광고 모델로 등장시키고, 한류 스타와 연계한 해외 CF 방영도 추진 중이다. 또 타깃 국가와 지역을 선별해 판촉단을 파견하고 현지 언론과 관광청을 초청해 '팸투어'를 제공하거나 '한국문화관광의 밤' '한류 스타 초청 특별문화공연 이벤트'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쇼핑 천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추진

2007년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6명은 쇼핑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들렀다.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업계는 사전에 쿠폰북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광객이 많이 들르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의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추진한다. 또 재방문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 할인, 4박 체류 시 1박 무료 제공, 테마파크 무료 입장 혜택을 주는 등 숙박업계와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한편 외래 관광객의 대다수가 대도시에만 머물다가 떠나는

정경택 기자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D-50 행사로 11월 1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개막식 행사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안드레 노소프스키호프 한국방문의 해 '미소 서포터스' 1기 대표(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이 참석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관광지로 분산하는 사업도 펼친다. 2008년 기준으로 외래 관광객의 74.5퍼센트가 서울에 들렀으며, 인천 20.9퍼센트, 부산 17.7퍼센트, 제주 11퍼센트 순(중복 질문 포함)이었다.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서울과 지방 관광지 간 정기 관광버스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기로 했다.

3대 메가 이벤트 · 7대 행사 연계해 관광객 유치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개최하는 3대 메가 이벤트와 7대 특별 이벤트를 연계해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3대 메가 이벤트는 2010년 서울세계디자인수도(연중),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 27일~9월 4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다.

7대 이벤트 중에는 2010년 한류축제(9월), 부산국제영화제 PIFF Night(10월), 세계음식관광축제(10월)의 일정이 확정됐다. 2011~2012년 개최 예정인 세계문화축제, 제주올레트레킹대회, DMZ 세계평화음악축제, 태안환경축제의 경우 위원회가 지자체와 상세 일정을 협의 중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한류축제는 한류의 대표 콘텐츠와 신라의 역사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한류문화를 선보인다.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열리는 PIFF Night는 해운대 해변 콘서트, 야경 크루즈, 불꽃축제 등을 마련해 영화제 외에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음식관광축제는 세계음식기행전, 명인 1백인 1백선 음식전, 세계 최고요리사 대회, 한국의 향토 별미 등 다채로운 맛 행사를 선보인다.

한편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인 2011년 10월에는 제19차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세계관광기구는 1975년 설립돼 2003년부터 유엔의 관광분야 특별기구로 편입된 국제기구로, 2년마다 열리는 총회는 관광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장관급 국제회의다. 이 회의에는 1백54개 회원국 관광장관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하며, 1백4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10월 8일 카자흐스탄 독립기념관 프레스룸에서 세계관광기구 차기 총회 한국 유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 유치는 한국의 관광대국 진입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총회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진흥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최은숙 기자

동아DB



10월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한국방문의 해 일본 선포식에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항공권 등의 경품을 추첨하고 있다.

한국의 아름다움, 여행으로 만나세요

한국관광공사, 공식 관광 상품 지정 · 공식 후원

Keyeast-BOF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키이스트의 여행 상품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을 공식 관광 상품으로 지정하고 공식 후원한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은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배용준 씨의 동명 저서에 등장하는 여행지와 장인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 상품이다.

배 씨는 지난 9월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의 명소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잘하지 못해 부끄러웠다. 촬영장에만 계시다가 돌아가는 해외 팬들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한국의 좋은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 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홍보사업팀 주미지 대리는 "여행 상품도 고품격 한국문화의 가치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말했다.

여행 일정은 우선 3개 지역에서 각각 2박3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일정은 자연주의 살림꾼 이효재 씨의 작업실에 들러 친환경 보자기 만들기를 배운다. 경북 일정은 도예 장인 천한봉 씨와 한께 차를 마시고 도자기를 만들며 한국 전통차와 도자기 문화를 배우고, 안동의 고택에 묵으며 한옥문화를 체험한다. 경기 · 강원 일정은 한지 장인 장용훈 씨와 함께 한지 서책과 공예품을 만들며 대를 잇는 장인정신을 배우고 설악산 백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

이 밖에도 키이스트는 청매실농원 홍쌍리 씨, 천연염색가 안화자 씨, 전통술 연구가 박록담 씨 등과 함께하는 문화여행 상품을 준비 중이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 **key2korea.com**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신동빈 한국방문의 해 위원장

"지역관광 활성화로 경쟁력 높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은 지난 9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9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신동빈(54) 롯데그룹 부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는 11월 3일 어렵게 이뤄졌다. 워낙 그의 일정이 바쁘기도 하지만, 평소 자신의 경영 철학인 '거화취실(去華就實)'에 따라 극도로 자제하는 듯했다. 이는 아버지(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사업가는 본업과 내실에 충실해야지, 그 외적인 어떤 겉치레 활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신 위원장은 호텔, 리조트, 쇼핑센터(백화점, 면세점), 여행사(JTB) 등 관광 관련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이끌 계획이다.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역점을 둘 사업은 무엇입니까.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는 한국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 환대 서비스 개선,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 외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한류페스티벌, 세계올레걷기대회, 세계음식축제 등 7대 특별 이벤트 개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손수제작물(UCC) 및 사진 공모전, 파워 블로그 등 온라인 마케팅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슬로건이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인데, 이 캠페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09년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관광 경쟁력 31위, 관광 친밀성 1백15위로, 관광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범국민 환대 서비스 캠페인을 펼치려고 합니다. 미소 캠페인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미소를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관광 종사자에게 표준화된 환대 서비스 교육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포터스(가칭 미소 국가대표) 등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방한객의 80퍼센트 이상이 서울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지방 관광객 유치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선호 관광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방분산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서울과 지방 정기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등 외국인이 선호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지방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의 미'와 관련된 추억이 있는지요.

아버지께서 4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행사로, 매년 5월이면 고향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둔기리에서 마을 잔치를 엽니다. 고향 마을이 댐에 수몰되면서 뿔뿔이 흩어진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때 함께 모여 안부를 묻고 즐겁게 지내며 인정을 확인합니다.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문화유산이 풍부하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인정미가 없으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따뜻한 인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음식을 추천한다면.

한정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정식은 우리나라 전통 코스 요리면서 한 번의 식사로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7월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개최한 '코리안 디너' 행사에 셰리 블레어 전 영국총리 부인을 비롯한 영국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정식을 맛본 후 기립박수로 화답하며 한식의 맛과 멋에 대해 극찬했다고 합니다. 저도 외국 손님들에게 한정식을 대접하곤 합니다. G

글 · 송동근(파이낸셜뉴스 문화레저부 기자)

한중 無비자 추진

'체류기간 30일 허용 방안' 연내 마련

한중 관광장관회의가 11월 18일 중국에서 열렸다. 2010~2012 한중 상호방문의 해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한 이날 회의는 양국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샤오치웨이 중국 국가여유국장이 11월 18일 꽃의 도시로 이름 높은 중국 쿤밍(昆明)에서 양국 간 관광협력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한중 관광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관광 분야 교류 촉진'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유 장관은 샤오치웨이 국장과의 회담에서 한중 양국 간 관광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한중 정상 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양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한중 정상회담의 관광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2010 중국방문의 해와 2012 한국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2010상하이엑스포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상호협력 방안 △한중 장관회담 및 한국 관광진흥협의회의 정례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국은 한중 관광장관회의 논의사항 등 양국 관광 분야의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한중 관광진흥협의회'를 내년 1월에 한국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2010 중국방문의 해 연계 상호 협력키로

또한 한중 관광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한중 간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교환프로그램 운영 △한중 국민 간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편의성 제고 △전담여행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한중비망록 수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 청소년 교류지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회의 이튿날인 19일 귀국한 유 장관은 "샤오치웨이 국장과 머리를 맞대고 양국의 관광발전 및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와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번 한중 관광장관회의는 앞으로 펼쳐질 21세기 동아시아의 대(大)관광교류 시대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0일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내년 5월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한중 양국 간에 30일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보고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유인촌 장관 인기 짱!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회의 전날인 11월 17일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중국 젊은이 2백여 명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중국 젊은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행사 개최 소식이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참석자들을 모으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무려 3천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참석자들은 평소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20대 전후의 중국 여성들이 주류를 이뤘다. 이들은 유 장관이 과거 유명한 배우였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 여성은 유창한 한국말로 "장관님, 상하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잘 생기셨어요. 영화 출연은 이제 안 하실 거예요?"라고 묻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중국이 문화적으로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대학교수 시절에는 경극에 관심이 많아 베이징 희극원과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경극을 가르쳤다"고 소개했다. 유 장관은 또 상하이와 서울의 분위기 차이, 한국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많이 하는 문화 활동,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 방안,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내년 상하이엑스포에서의 한국문화 홍보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도 시종일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응해 큰 환호를 받았다.

“한국형 관광… 시스템적 접근 필요한 때”

2002 한일월드컵, 한류문화 열풍 등으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의 메카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플루,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까지 겹치면서 관광산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한파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신종플루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 어느 해보다 낮다.

올해 9월까지 관광지출 누계는 67억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1퍼센트 감소했다. 관광수입은 70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8퍼센트 증가했다. 9월까지 누계된 관광수지는 3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인바운드 업계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아웃바운드 업계가 체감하는 경제 한파는 그 어느 해보다 매서웠다. 아웃바운드에 의존하던 적지 않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대형 여행사들도 무급휴가 확대로 한파를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범정부적인 확실한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각종 규제를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지향해야 할 명확한 정책 목표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지 상징적인 숫자에 머물렀다.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가치를 단순히 관광수지 흑자라는 경제적 가치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래를 향한 교육·문화 가치와 폭넓게 연계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목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업체 간 과당경쟁 인명 빼앗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개발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마케팅 사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새만금, 레저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관광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한국관광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관광협회 중앙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관광협회가 협회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업종별 협회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관광선진화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업체 간 과당경쟁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동아DB

11월 14일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로 일본인 관광객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전 등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2002년부터 ‘우수 여행 상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관광산업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간 문화와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접점이다. 한국의 관광산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관광산업의 선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G

글 · 한범수(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일러스트 · 이우정

여행업계에 1백억 특별융자… 10대 명품 콘텐츠 개발…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 연다

신종플루 한파 겪은 여행업계에 특별융자

정부는 우선 신종플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해 1백억원의 특별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융자 대상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관광) 여행업체는 물론이고 그동안 정기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관광) 여행업체와 국내여행업체도 포함된다. 또 전세버스사업자의 차량 할부금 상환을 12월 말까지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관광 침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안전한 여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여행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을 늘릴 계획이다.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이후 풍기인삼축제가 73퍼센트, 금산인삼축제가 15.4퍼센트 등 인삼축제의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이 적은 관광 상품의 마케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 최대 카드회사인 JCB와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배용준 등 한류스타의 연말 특별광고와 쇼핑과 연계한 한류 대감사제 캠페인을 실시하며,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스키 등 동계상품을 늘릴 계획이다.

복합기능 관광단지 개발 허용… 토지비용 부담 줄여줘

관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민간 투자가 늘어나 내수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관광 수요와 투자가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인프라 등 관련 투자가 확대되어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휴가와 공휴일 제도

의 개선, 가족여행이 가능한 교육체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제도, 규제 완화 및 관광사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휴가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경제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공휴일 제도에 대해서도 노동·경제계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재량휴업 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족단위의 관광을 촉진하고, 취약계층과 맞벌이 자녀의 학습관광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약자도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장애인 관광버스를 2012년까지 50대로 늘리고 수화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를 3백명 양성한다. 또 소외계층 관광 참여 확대를 위한 '관광나눔 바우처'도 도입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단)지 시설을 네거티브 방식(모두 허용하고 문제되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휴양, 정주, 의료, 쇼핑 등 복합기능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관광단지 개발 시 국유지는 20퍼센트, 공유지는 30퍼센트까지 임대료를 낮춰 관광사업자의 토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광산업펀드 도입, 휴양콘도 회원모집 기준 완화, 관광숙박시설 위탁경영 허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광·폐선 등 유휴시설 관광자원화 나서

관광 선진국에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특별한 이미지와 이야깃거리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10대 명품 관광 콘텐츠를 발굴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의 역사, 정신, 민속문화, 5대 궁·능 및 세계유산, 고도산업성장, 공연과 한류 등 대중문화, 쇼핑·의료 등 신성장 관광, 비무장지대(DMZ) 등을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세계 수준의 한국 관광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내에 사업추진 전담 조직을 만들고 선정된 콘텐츠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자원에 매력을 더하는 관광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경주 선덕여왕, 전주 막걸리 거리 등 콘텐츠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전통문화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폐광과 폐선을 관광자원화하며 오픈세트장을 숙박체험 관광시설로 재활용하는 등 유휴시설의 관광자원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의 관광개발 방향은 종래의 권역단위 개발방식에서 더 나아가 해안과 도로, 강과 길을 연결하는 선형개발을 통해 전 국토를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디자인한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 주변지역의 역사문화 복원과 공공디자인 조성, 수변 레포츠공간과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 등 4대강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평화생명길, 지리산 둘레길, 강화 나들길, 동해트레일, 영남대로, 삼남대로 등 숨겨진 옛길을 찾고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걷기여행문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과 테마가 있는 도로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에서 삼척을 잇는 2백40킬로미터의 낭만가도 조성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MICE·창조형 관광 집중 육성… 복합형 쇼핑단지도

감성에 바탕을 둔 창조형 관광과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쇼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관광 공간을 마을 단위 기초생활권으로 확장해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시범사업을 내년에 4개소에서 시작한다. 이는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체험하고 관광객의 지출이 지역주민에게 귀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창조적인 지역관광 리더와 1인 관광기업을 육성해 지역기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명, 역사적 사건, 설화, 전설 등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 스토리를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백명의 이야기꾼을 양성한다. 국민적 관심 유도와 확산을 위해 '이달의 한국관광 스토리'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 스토리를 관광기념품이나 드라마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MICE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011년 유엔·WTO 세계관광총회 유치를 계기로 MICE 메카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을 대표하는 MICE 스타 브랜드를 육성하기로 했다.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0년부터 쇼핑 인증제를 실시해 쇼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지역에 사전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지역 쇼핑 인


연합

관광에도 콘텐츠가 중요하다. 경북도는 지하철에서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오는 화랑들이 경북 관광을 홍보하게 해 승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프라를 늘린다. 또 사후면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환급시스템 및 인천국제공항 환급창구를 확대하고 서울 명동, 동대문·남대문시장, 인사동 등 주요 거점에 관광과 쇼핑이 결합된 복합형 쇼핑단지를 육성한다.

환율 변동에 대비해 환율의 영향이 적은 한류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방송을 관람하는 여행상품, 한류스타 팬미팅을 비롯해 '선덕여왕', '아이리스'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를 여행상품으로 개발한다.

또한 새로운 잠재시장인 환승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할인쿠폰 배포, 스톱오버(중간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 관광객 숙박료 일부 인하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비자제도 개선 · 중저가 숙박시설 늘려 관광객 발길 잡아

중국은 2008년 4천5백84만명이 해외여행을 했으며 2015년에는 약 1억명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의 해외 여행객 가운데 약 2.6퍼센트인 1백17만명만이 한국을 방문했다. 반면에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여행객은 3백96만명이나 된다. 2015년 중국 해외 여행객의 10퍼센트만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만들어도 연간 1천만 명이 되고, 1백26억2천만 달러(약 1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나타 자동차를 약 70만 대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을 늘리는 등 중국인 관광객 수용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06년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후 중국인 관광객이 2005년 3천8백21명에서 2008년 2만2천9백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인 개별 방문객의 여행사 비자발급 대행제도를 중국 내 전 공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칭다오 영사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국인 비자 발급은 약 2배 증가하고 불법 체류율은 8퍼센트에서 0.08퍼센트로 줄었다. 또 2종류의 경제력 입증서류를 폐지하고 여행사 보증서와 여행계획서로 대체한다. 나아가 중국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융자 이자율을 완화하고 거치기간도 늘리는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하고 용적률 완화를 유도하여 2012년까지 총 1만 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일반호텔뿐 아니라 호스텔, 한옥과 템플스테이, 굿스테이(한국관광공사의 인증을 받은 우수 중저가 숙박업소)등 다양한 숙박업소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내년에 한국판 카오산 로드인 '월드게스트빌리지' 2개 지역과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휴양촌' 5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 완료되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 사업과 연계해 '교통·관광시설·숙박'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Korea Pass'를 도입한다. 우선 이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관광지를 방문하면 교통비와 입장료를 연계해 10퍼센트 할인해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발전하는 선진국형 성장산업이다. 그러므로 관광산업 선진화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현준 사무관은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이 실현되면 2020년 우리 국민은 연간 30일을 관광하고 2천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며 이로 인해 3백억 달러의 관광수입과 2백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플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늘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일본 학생들이 인천공항 출구를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방문의 해다. 또 G20 정상회의,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김 사무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환대 서비스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찾아와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미소와 친절을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따뜻하게 대접했던 우리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G

글 · 이혜련 기자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싸구려 관광 · 안전 불감증 없앨 것"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은 88퍼센트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71퍼센트), 휴대전화(52퍼센트), 반도체(43퍼센트)보다 훨씬 높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보기술(IT)산업의 5배에 달한다. 이처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관광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50) 관광산업국장에게서 관광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었다

올해 관광정책의 성과를 정리해주십시오.

9월 말 현재 외래 관광객은 약 5백7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퍼센트 늘었습니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1백만명이 많은 약 7백90만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수지도 9월 말 현재 3억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9년 만에 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효과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가 발표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아태지역 국가별 관광활동 보고서'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래 관광객 수를 좌우하는 환율 변동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환율은 우리 관광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영향을 덜 받는 매력 있고 경쟁력 높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MICE, 쇼핑, 의료, 한류 · 공연 관광과 환승관광 등 잠재력을 갖춘 새로운 관광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MICE 메카로 도약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G20 정상회의 자체가 MICE여서 MICE산업의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MICE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MICE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MICE 개최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글로벌 MICE 캠페인을 전개하고, 해외 MICE 전담기지를 구축해 신규 MICE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한류관광 활성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류스타의 팬 사인회, 팬 미팅, 콘서트 등 한류관광 상품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강력한 상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지시장 분석, 현지 여행업자 팸투어 등을 통해 한류 홍보를 극대화하고, 인기 한류스타를 해외 한국관광 홍보에 활용하며, 유명 드라마 촬영지를 남이섬과 대장금 테마파크 같은 관광지로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류로 발생하는 관광, 쇼핑, 패션, 공연, 스포츠, 음식 등 연관 산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광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한국적 특성의 명품 콘텐츠 개발, 친절하고 쾌적한 관광 한국 이미지 창출, 국가브랜드 인지도 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부산 사고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광가이드 및 관광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관광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방문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안전 한국(Safety Korea)'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저가 관광 상품을 근절해나가겠습니다. 가격보다는 품질로 승부하도록 관광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그밖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해외여행 홍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여행 리플릿(Q&A) 제작 배포, 위기대응지침 PDF 파일 인터넷 배포, 안전여행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 인기

“그림 속 호랑이들이 코를 파고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어린이들이 미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들고 직접 찾아가는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을 10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다. 11월 5일 그 네 번째 미술관이 열린 수원 영덕초등학교를 찾아 미술에 흠뻑 빠진 어린이들을 만났다.



수원 영덕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준비해온 작품을 보며 지승현 교육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호랑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호랑이 가족이 달밤에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있는 작품(안윤모 작 ‘쉿’)을 보며 지승현 교육강사가 묻자 아이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애기 호랑이가 아파요!” “다 같이 코를 파고 있어요!”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 강사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모두 정답”이라며 “미술은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1월 5일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이하 어린이미술관)’의 네 번째 시간으로 수원 영덕초등학교를 찾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준비해온 작품은 이 학교 5층 다목적실에 전시됐다. ‘미술관’ 프로그램은 오전 9시, 슬라이드를 이용한 간단한 작품 감상과 미술관 관람예절 안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등을 가진 뒤 10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작품 감상이 시작됐다.

전시된 작품은 안윤모 작가의 동물가족 그림들과 박형진 작가의 ‘정원에서 놀기’ 등 모두 12점.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문화과 이승미 팀장은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어린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작가의 협조로 추가된 작품, 미술은행 작품 등이며 모두 어린이들이 재미있어하고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작품들로 엄선했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으로 확대… 홈페이지 통해 선착순 신청

한 번에 두 학급씩 오후 2시까지 전교생 1천1백여 명이 모두 관람한 이번 미술관 프로그램의 첫 관람객은 1학년 1반과 2반 어린이들이었다. 지 강사는 아이들에게 작품에 대한 해설보다 작품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자유롭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갔다.

지 강사는 “어린이들의 그림 감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스스로 작가가 되고,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지 강사와 함께 작품 해설을 맡은 이애선 팀장은 “미술관이 재미있는 곳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술관 수업 후 어린이들이 미술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면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만연한 신종플루 때문에 외부 견학 등 ‘찾아가는’ 수업을 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미술관 수업에 시종일관 즐거워했다. 이 팀장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각 학교에서 미술관 방문을 곤란해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견학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교내로 찾아오는 미술관 수업에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학교 김선숙 교장은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접하는 것이 정서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 학교는 미술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찾아가는 어린이 미술관’ 프로그램이 있어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들이 기분을 내고 있다”며 흡족해했다.

이 팀장은 “국립어린이미술관을 1년에 1회라도 찾는 어린이들이 5퍼센트 미만”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미술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 교육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뤄지고, 아이들도 부모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미술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문화·예술 교육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뤄지고, 아이들도 부모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15일 의왕 갈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2일 부천 송일초등학교, 29일 오산 대호초등학교 등에서 진행됐다.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실시한 ‘초등교사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울·경기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학교 중심이다 보니 외딴 섬에 있는 오지 학교 등은 미술관이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애초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금과 같은 시범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다.

미술관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시간 부족이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서울·경기지역은 1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3, 4시간 사이에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승현 강사는 “참가 어린이 숫자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술관 프로그램은 작품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 찾아오는 미술관’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미술에 흥미를 느껴 미술관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이들에게 미술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붙이는 게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 팀장 역시 “미술은 쉽고 재미있고 창의적 영역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속 미술의 이해’라는 청소년 미술 감상 교육프로그램도 10월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 **moca.go.kr**

어린이들이 국립현대미술관 교육강사의 지도에 따라 미술 작품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책 읽어주는 할머니' 실버문화봉사단 '북북'

"구연동화로 마음 나눠요"

실버문화나눔봉사단 '북북(book-book)'은 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단체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북북'은 직접 만든 인형과 소품을 이용한 구연동화를 통해 소외된 어린이나 치매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 동화 구연을 하는 실버문화나눔봉사단 '북북' 1기 단원인 박정임, 양은자, 전명숙 씨(왼쪽부터)는 "봉사활동이 즐겁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꽃나무를 심기 전에 막걸리를 한 잔 해야겠구나." "아빠! 엄마가 일 하기 전엔 술 마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11월 17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미소들실버센터 내 주간보호센터(사회복지사들이 낮 시간 동안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곳으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에서는 이야기를 듣는 30여 명의 어르신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젊은 어르신' 3명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듣는 어르신들은 치매, 뇌중풍 등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보다 집중하기 힘들지만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선생님들이 전하는 이야기라 그런지 한결 즐거운 표정으로 빠져드는 모습이었다.

이날 구연을 맡은 전명숙(63), 박정임(62), 양은자(65) 씨는

실버문화나눔봉사단 '북북'(이하 북북)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다. 60세 이상 어르신 21명으로 구성된 '북북'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지원을 받는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이다. 주로 소외된 어린이나 치매 환자 등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 3인 1조가 되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펼친다.

동화책 한 권 달랑 들고 와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비, 곰 등 주인공들의 인형은 기본이고 종이접기 등으로 각종 소품을 직접 준비해 작은 인형극을 펼친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봉사지만 이를 준비하려면 며칠간 손발을 맞추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한다.


'북북'은 그냥 동화책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주인공 인형과 소품을 직접 준비해 작은 인형극을 펼친다.

3인 1조로 소외된 어린이나 치매 환자 등 찾아 공연

이날 내레이션을 맡아 가장 체력소모를 많이 한 전명숙 씨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힘든 줄 모르겠다"며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손녀에게 '할머니는 최고의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들어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손자, 손녀가 넷 있는데, '북북' 봉사를 시작한 뒤 아이들이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해 어린 손자에게 전화로 동화를 읽어줘야 할 정도로 '인기짱 할머니'가 됐다고 한다.

박정임 씨는 "오전 11시까지 봉사활동을 나오기 위해서는 아침 7시부터 준비해야 한다. 남편의 아침식사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점심도 혼자 해결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가족들도 모두 이해하고 도와준다. 내가 하는 봉사활동은 결국 가족들이 함께하는 봉사이며 나는 그 대표일 뿐인데 봉사의 기쁨은 나 혼자 독차지하니 가족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북북 봉사단은 점차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봉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인 어르신들에게 반대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급식봉사, 목욕봉사 등 '노력봉사' 위주의 봉사활동에서 '문화봉사'로 눈을 돌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양은자 씨는 "초등학생 손자, 손녀들이 내겐 선생님이다. 동화를 보면 아이들이 어떤 소품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내가 만든 소품을 보고 '이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고 조언한다. 그대로 고쳐 봉사활동에 가지고 나가면 어린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 '북북' 봉사활동 덕분에 정신연령이 젊어지다 못해 어려졌다"며 기뻐했다.

'북북'은 올해 7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두 달간 15번에 걸친 교육을 진행한 뒤 지난 9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이 지정되면 3주에 걸쳐 3번 봉사활동을 펼친다. 처음엔 다소 낯설어하지만 마지막 봉사 후 헤어지는 시간엔 "선생님 언제 또 오세요?"하고 물으며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접은 종이학을 선물로 건네 할머니 선생님들의 코끝을 찡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이경아 프로젝트매니저는 "북북 봉사단은 점차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봉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인 어르신들에게 반대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급식봉사, 목욕봉사 등 '노력봉사' 위주의 봉사활동에서 '문화봉사'로 눈을 돌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명숙 씨 등 세 사람은 "봉사활동을 위해 '시니어 아카데미' '노인상담사 교육' 등을 이수했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지만 실제 봉사할 기회가 적다. 그런데 '북북'은 현장 봉사활동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경우다. 노인들의 교육과 봉사활동이 따로 노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북북' 봉사활동이 진행된 미소들실버센터 주간보호센터의 이옥자 사회복지사는 "치매 어르신들이라고 24시간 내내 정신을 놓고 계신 게 아니다. 어르신마다 증세의 경중이 있으며 대부분 잠깐 증세가 심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분들에게 구연동화 등 감성을 자극하는 활동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대부분 즐거워하셔서 좋다"며 문화봉사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했다.

'북북' 봉사는 현재 서울, 원주, 전주, 대전 등 네 도시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 매니저는 "부산, 광주, 제주 등에서도 찾아 달라는 연락이 줄을 잇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와 어르신들 외에 소아암 어린이, 다문화가족 등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만나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북북' 봉사단 1기 활동은 12월 마무리되며 내년 봄 2기 봉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Tel 02-773-5465 www.moonbok.or.kr

동아DB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지금부터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골키퍼 오영란 선수 은퇴… 코치로 변신

여성 핸드볼팀의 올림픽 도전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 중 한 명이 골키퍼 오영란 선수다. 그가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은퇴한다. '우생순' 신화를 뒤로하고 지도자의 길을 걷겠다고 한다.

2008년 8월 23일 중국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 헝가리와의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핸드볼 3, 4위전이 끝난 뒤 한국팀 골키퍼 오영란(37·벽산건설)은 코트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아쉬움과 후련함이 뒤섞인 눈물이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날 대표팀 임영철 감독은 경기 종료를 1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해 오영란과 함께 오성옥, 허순영, 홍정호, 박정희 등 서른을 훌쩍 넘긴 고참들을 코트에 투입했다. "마지막을 너희가 장식해라"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더는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는 고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올림픽이 끝나고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던 오영란이 이제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던 실업 핸드볼 무대에서도 떠난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4회 연속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팀의 골문을 든든히 지킨 오영란은 최근 선수 생활을 접기로 결정했다.

여자 핸드볼의 '거미손'

하지만 완전히 핸드볼과 연을 끊는 건 아니다. 벽산건설 핸드볼팀 임영철 감독은 11월 11일 "오영란이 다음 시즌부터는 벽산에서 코치로 활약한다. 선수 시절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영란이 은퇴 경기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건 복중 태아 때문이다. 오영란의 남편인 강일구(33·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아내가 임신 5주째로 내년 6월 말이 출산 예정이다. 딸 서희(3)에 이어 둘째를 보게 됐다"고 귀띔했다.

1991년 신갈고 입학과 동시에 핸드볼에 입문한 오영란은 한 개도 힘들다는 올림픽 메달을 3개(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나 수집했다. 스물넷에 처음 출전한 올림픽(1996 애틀랜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오영란은 2004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순발력과 유연성이 뛰어난 그는 올림픽 때마다 '선방 쇼'를 펼쳤다. 특히 베이징올림픽 예선에서는 경기당 10개가 넘는 선방을 기록하고 골까지 기록하면서 한국의 본선행을 이끌었다. 팬들은 그에게 '통곡의 벽' '골 넣는 골키퍼'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최고의 활약을 펼쳤음에도 금메달과 인연이 없었던 게 선수 생활을 돌이켜 두고두고 남는 아쉬움이다.

유명세는 뒤늦게 얻었다. 핸드볼 인기가 미미한 한국에서 그가 이름을 떨칠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가 인기를 얻은 건 2007

동아DB



영화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 오영란이 선수 생활을 접고 지도자로 새 출발한다.



'핸드볼 거미손'으로 불린 오영란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한국 대 스웨덴 예선전에서 상대 공격수의 슛을 막아내고 있다.

년 영화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통해서다. 아테네 올림픽 당시 여자 핸드볼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는 임오경(서울시청), 오성옥(오스트리아 히포방크) 등과 함께 '핸드볼 스타'로 등극했다.

시련 딛고 일어선 '오뚝이'

그는 20여 년간 핸드볼에 인생을 걸었다. 서럽고 힘든 일도 많았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1년여 간이나 핸드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다. 2003년 3월 오영란은 소속팀 광주시청 핸드볼팀 선수들이 감독 인선 문제로 훈련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대표팀의 허락을 받고 광주로 내려갔다. 당시 아테네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소집된 대표팀은 3월 28일 전지훈련차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열흘 전 광주로 내려간 오영란은 소속팀 문제가 악화되면서 대표팀에 복귀하지 않았다. 큰언니로서 후배들을 놔두고 혼자 떠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오영란은 대표팀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지만 대표팀 복귀 기한을 어기고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2003년 5월 핸드볼협회로부터 1년간 출전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행히 핸드볼협회는 징계를 받은 기간도 많이 지난 데다 과거 국가대표로 뛰어난 공적을 쌓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후 사면 결정을 내렸다.

18년간 청춘을 바친 핸드볼이 그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남편이다. 그의 남편은 남자 핸드볼대표팀 수문장 강일구. 둘은 2000년 초 나란히 시드니올림픽 국가대표팀에 뽑혀 불암산 등반 훈련을 하면서 차츰 친해졌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다.

네 살 연하의 남편에 대해 오영란은 "핸드볼을 하면서 얻은 최대 수확이 남편이 아닌가 싶다. 내가 무뚝뚝한 편인데, 남편은 유머 감각이 있다"며 "2003년 10월부터 6개월간 노르웨이 프로팀에서 뛰었는데, 당시 통화를 자주 하는 바람에 국제통화료가 많이 나와 결국 벌어온 돈은 1백원 정도뿐인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활짝 웃었다. 남편 강일구 씨는 "아내가 시속 1백 킬로미터가 넘는 공을 온몸으로 막아낼 때마다 정말 안쓰러웠다. 이제는 공을 안 맞아도 되는 게 가장 기쁘다"며 즐거워했다.

은퇴는 서럽지만 반가운 것도 있다. 딸 서희와 오롯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매일 이어지는 경기와 훈련 때문에 오영란은 서희를 보는 날이 1년에 손꼽을 정도였다. 베이징올림픽 때도 오영란은 틈만 나면 전화기를 손에 들고 서희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희는 "엄마? 엄마야? 싫어, 싫어" 하면서 전화기 저 멀리로 도망가기 일쑤였다. 시속 1백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커다란 핸드볼 공은 아무렇지 않게 온몸으로 막아내면서도 아이의 말 한마디에는 바늘에 찔린 듯 아프게 반응하던 오영란이었다.

오영란은 출산 후 벽산건설에서 코치 수업을 받는다. 핸드볼 실업팀에는 여성 감독이 임오경(서울시청)뿐이지만, 오영란은 차근차근 코치 수업을 받아 여성 감독의 계보를 잇겠다는 각오다. G

글 · 온누리(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

오영란은 출산 후 벽산건설에서 코치 수업을 받는다. 핸드볼 실업팀에는 여성 감독이 임오경(서울시청)뿐이지만, 오영란은 차근차근 코치 수업을 받아 여성 감독의 계보를 잇겠다는 각오다.

정부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

추가 답변 제도로 '불만 제로' 도전



일러스트 · 채홍석

#1 20대 후반에 뒤늦게 수학능력평가시험 공부를 시작한 김모 씨. 모의고사를 보려면 출신 고등학교나 학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학원은 수강생 위주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도 자리가 없었고 출신학교는 지방이라서 시험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 씨는 출신학교나 학원에서 시험을 보기 어려운 졸업생들도 지구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1차 답변은 학원의 수용 인원은 제한이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출신학교에 접수시키라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김 씨가 불만을 표시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규정을 바꾸는 것은 시험 관리상 불가능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교육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라는 2차 답변을 보냈다. 김 씨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았다며 성의 있는 답변에 만족했다.

#2 회사원 박모 씨는 아파트 입구의 교통체증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인근 공사장 차량,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들 때문에 가뜩이나 바쁜 출근길에 혼잡이 계속됐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교통경찰이 나와서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해주길 원했다.
박 씨는 해당 경찰서에서 택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시행사
출입을 제한하고 지구대에 출근길 불법 주정차와 법규위반
했다는 1차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출근길 혼잡은 계속됐고
출근시간대 덤프트럭 진·출입 제한을 다시 통보했다는 2차
그러나 2차 답변에도 박 씨가 불만을 표시하자 해당 경찰서
에 공사차량 교통법규 준수를 다시 당부했고 지구대 및 교
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추가
박 씨는 3차 답변을 받고 교통 흐름이 확실히 좋아졌다며 만



온라인으로 낸 정부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에 불만이 있으면 추가 답변 등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범정부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을 하게 한 후 민원 만족도를 새로 평가받게 하는 '민원 불만제로 서비스'를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부터 중앙부처 민원 서비스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민신문고의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받는 답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아도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받기 어려워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의 저해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국민이 온라인 답변을 열람한 후 만족도 설문에서 '불만족'으로 답변한 경우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통보해 민원인의 불만이나 궁금증을 추가로 해결하고 만족도를 재평가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실제로 7월부터 석 달 동안 '민원 불만제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담당 공무원이 불만족 민원에 추가 답변을 한 1천2백24건 중 2백34건의 민원은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민원 사후관리 체계 정착시켜 만족도 향상시킬 것"

국민권익위원회 전시현 사무관은 "불만족한 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이나 답변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도가 향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만족도를 계속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당신의 웃음이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은 7~10년 전매제한되며,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일부 떴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통장 불법거래 시
청약기회를 상실하거나 형사처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 지연 및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보금자리주택 – new
"보금자리주택 부정거래가 당신의 환한 웃음을 앗아갑니다"
보금자리주택 투기는 사회의 공적입니다
국토해양부
www.mltm.go.kr
LH
www.LH.or.kr


4대강 살리기
군청
이곳에 군수로 부임해 일하기 시작한 지 꼭 보름째, 날마다 야근을 하며 하루빨리 군정(郡政)을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신임 군수들이 모두 일주일 안에 그만둔 이유를 이제야 알았으니….
흑흑…
왔다.
끼익
뚝
스스스
오늘은 절대 정신을 놓지 않는다!
아, 아가씨들들들…. 무, 무엇을 도,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대민봉사는 공무원의 기본 소양….
새엄마가 우리를 죽였어요.
밤에 돌을 매달아서 강물에 빠뜨렸어요.
헉! 그, 그런!
새엄마는 벌써 구속됐어요.
우리 시체도 인양됐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물귀신이 된 몸. 강에서 계속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 그런 문제가!
우리가 물에 빠질 때도 물이 깨끗했으면 좀 덜 억울했을 텐데.
4대강 살리기 수질 개선 효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는 박상돈 의원(왼쪽).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천안에 내려가
장애인들의 보치아 경기 연습을 돕는다.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 지원하는 박상돈 의원

"함께 운동하면 금세 하나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치거나 아프면 장애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간과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 장애인들이 즐기는 스포츠 '보치아'의 충남연맹 회장이자 감독인 박상돈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사회를 꿈꾼다"며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했다.

11월 첫째주 주말 오후, 충남 천안 장애인종합체육관. 휠체어를 탄 10여 명의 장애인이 공을 굴리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 옆에서 "그렇지"를 외치며 손뼉을 치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박상돈(60) 자유선진당 의원이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운동은 '보치아'라는 장애인 스포츠.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때 처음 소개된 것으로, 공을 하나 던져 놓고 그 공에 가깝게 공을 굴리는 팀이 점수를 얻는 경기다. 박 의원은 충남 보치아연맹 회장이자 감독이다.

박 의원이 장애인들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이다. 충남도청 공무원을 거쳐 아산 군수와 대천, 서산 시장 등 2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뒤 천안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 복지단체인 '한빛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때부터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 전국대회 통합 개최 기대

이후 장애인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보치아를 접할 기회도 많아졌고 결국 감독까지 맡게 됐다. 그는 "처음에는 감독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얼떨결에 맡았는데 이제는 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장에 나갔다. 의원이 된 뒤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천안까지 내려가 선수들과 만난다. 처음에는 작은 운동모임에 불과했지만 선수들에게 활동의 장을 넓혀주기 위해 도 단위의 연맹도 만들었다.

대구, 부산 등 지역 단위의 시합에 꾸준히 참가한 끝에 지난 7월 열린 전국 보치아 경기대회에서는 충남 보치아연맹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9월에는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종합 2위라는 좋은 성적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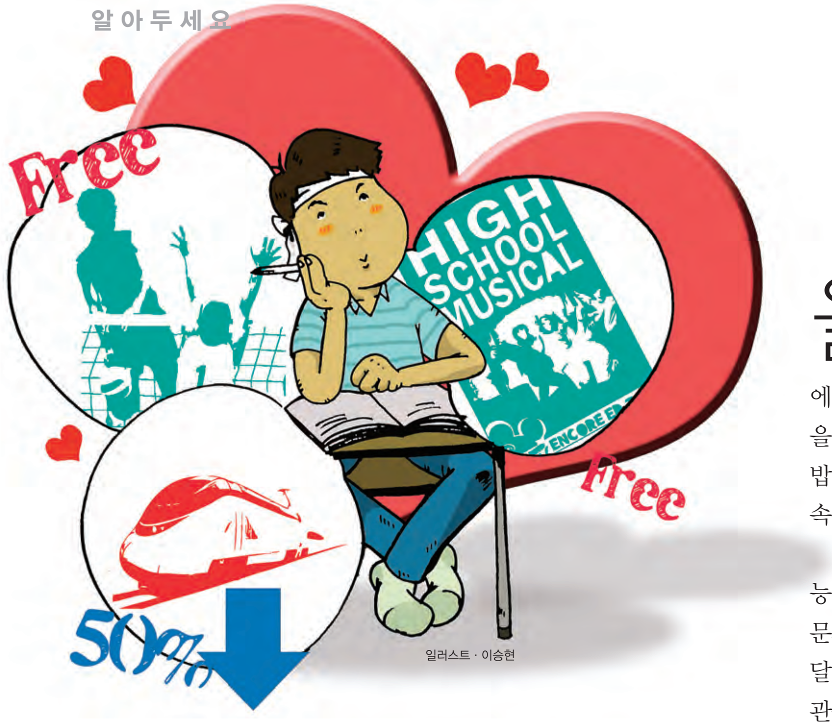
"시간이 허락되면 대회가 어디서 열리든 꼭 가서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직접 못 갈 때는 선수들이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는데 뇌성마비를 앓는 아이들이 어눌한 말씨로 '감독님, 우리가 이겼어요'라고 전해올 때는 가슴이 벅차더군요."

박 의원은 장애인 이동봉사대원이기도 하다. 이동봉사 역시 그가 장애인과 친구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지체 장애인들에게 이동은 생명"이라며 "직장과 병원, 학교를 오갈 때 휠체어를 밀어줄 손이 필요하다. 봉사를 큰 희생이 아니라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면 기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인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정책으로 풀어나가는 박 의원은 지난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철저히 분리돼 진행되는 전국체전을 통합 개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그는 "두 대회를 동시에 개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의 성적을 합산해 지역별 순위를 매기면 각 지자체가 장애인 체육 복지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G

글 · 김정은(연합뉴스 정치부 기자)



일러스트 · 이승현

수능 끝났다 스트레스 확 날려!

수험생 위한 '문화공감' 인기

수능시험이 끝났다. 길고 긴 준비 끝에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수능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수험생 문화공감'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자.

수험생 문화공감 프로그램

전시	**일시** 11. 5~12. 6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 제1, 2전시실 **단체** 예술의전당 **문의** 02-580-1601 **비고** 수험생 무료 **프로그램** 재외한국청년미술제 (Emerging Korean Artists in the world -U·S·B)
전시	**일시** 10. 22~12. 6 **장소** 옛 기무사 본관, 대강당 등 **단체** 국립현대미술관 **문의** 02-2188-6066 **비고** 전체 무료 **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 옛 기무사 공간 활용 전시 〈신호탄〉
공연	**일시** 12. 1~2010. 2. 28 **장소** 대학로 일대 공연장 **단체** 한국연극협회 **문의** 02-3673-1297 **비고** 사이트 예매 시 수험생 및 동반 1인까지 총 2회 1천원으로 관람 **프로그램** 대학로 페스티벌(3일 이상 공연되는 프로그램)
스포츠(남자농구)	**일시** 11.12~12.31 **장소**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단체** 삼성 농구단 **문의** 031-260-7631 **비고** 수험생 무료 **프로그램** 홈경기(8회)
스포츠(남자농구)	**일시** 11.12~12.31 **장소** 서울 잠실학생체육관 **단체** SK 농구단 **문의** 02-6100-7506 **비고** 수험생 무료 **프로그램** 홈경기(4회)
관광	**일시** 12.10~2010.2.10 **장소** 국내 **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문의** 02-7299-612 **비고** 수험생 50% **프로그램** 수능시험을 마친 고3 및 수험생이 개별 프로그램 계획으로 여행 시 7일간 무제한 철도 이용권인 내일로(Rail路) 패스 할인(1천명)

올해 수능시험을 본 아들을 둔 주부 정은교(43) 씨는 요즘 한창 아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1월 12일 수능을 본 이후부터 아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 이용권을 발급한 게임에 한창 매달려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정 씨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아들과 찬찬히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어 속상하기만 하다.

이런 정 씨의 고민을 말끔히 씻어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과 그 가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오랫동안 수험생활에 시달려온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수험생 문화공감' 사업이 그것이다.

수험생 문화공감 사업은 크게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체육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문화예술 분야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하나인 '꿈꾸는 문화열차'는 비보이 퍼포먼스, 타악 퍼포먼스, 국악연주회, 연극 등 우수한 공연 프로그램을 제주도, 남해 등 소외지역 89곳을 찾아가 무료로 공연해준다. 또한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경북 김천, 제주도 등 4곳에서 열리는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다. 국악콘서트 '잔치', 오페라 갈라 콘서트 '피가로의 결혼', 국립합창단의 '헨델의 메시아'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오페라, 국악, 합창 등을 수험생과 가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 밖에도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펼쳐지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대학로에서 3일 이상 공연되는 청소년 관람 가능 공연을 수험생 및 동반 1인까지 총 2회 1천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대학로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서울, 인천 등 각 지역 홈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총 3백17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수험생 시절의 고단함을 털어버릴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수능을 마친 고3 및 수험생 1천명에게 여행 시 7일간 무제한 철도이용권인 내일로(Rail路) 패스를 50퍼센트 할인해준다. 저렴한 철도이용권으로 전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험생 문화공감 사업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자세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또는 꿈꾸는 문화열차(intoculture.or.kr), 전국문예회관연합회(nacac.or.kr) 등 주요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끊어내기, 풀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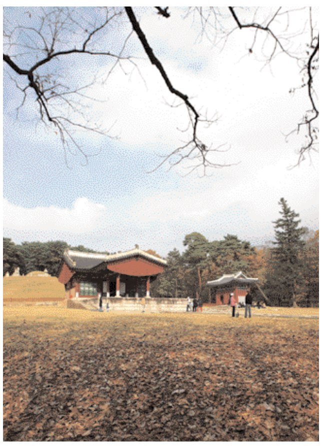
글과 그림 · 최영순



만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상대방이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니까요.
– 정채봉(아동문학가)







소나무와 참나무가 뒤섞여 독특한 운치가 풍기는 휘릉과 원릉 사이의 숲길(위). 잎을 모두 떨군 채 겨울 채비에 접어든 수릉 주변의 참나무숲(아래).

←
현릉과 건원릉 사이의 소나무 숲길. 일제강점기에 왕릉 주변의 많은 소나무들이 벌목됐다.

경기 구리 동구릉

왕릉 숲 쉬~ 걷다 보면 500년 역사가 오롯이

우리나라의 왕릉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특히 도시 한복판이나 근교에 자리 잡은 왕릉을 볼 때마다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그 능이 없었다면 그만큼의 숲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과 사람의 거리도 훨씬 더 멀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에 조선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을 비롯한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도 자연과 공존하는 역사유적이라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고 한다.

오늘날 왕릉을 찾는 사람들은 왕과 왕비들의 자취뿐 아니라 아름다운 숲과 살아 있는 자연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 수백 년 동안 왕실과 국가의 엄격한 보호를 받아온 왕릉은 울창한 숲과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돼 있어서 가벼운 산책코스로도 제격이다. 또한 이맘때쯤의 가을날에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만추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아주 좋다.

조선왕조의 오백년 도읍지였던 서울과 서울 근교에는 여러 곳의 왕릉이 산재한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자리 잡은 동구릉(관리소 031-563-2909)이다. 면적이 1백96만5백11제곱미터(약 59만3천 평)인 동구릉은 어지간한 대학 캠퍼스보다도 넓다. 단순히 넓은 것만이 아니라, 숲의 보존 상태와 자연풍광도 우리나라 왕릉들 가운데 최고로 꼽힐 만하다. 그러므로 답사기행을 겸한 생태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울창한 숲·자연 보존 잘 돼 있어 가벼운 산책 코스로 제격

도성 동쪽에 있는 9개의 능묘란 의미의 동구릉에는 모두 17명의 왕과 왕비가 묻혀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조선 최대의 전란인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조선의 문예부흥기를 연 개혁군주이자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비정의 아버지 영조 등의 능이 모두 여기에 있다. 능과 능을 잇는 숲길은 매우 아름답고 운치 있다. 그 길의 운치에 매료되어 하나하나씩 섭렵하다 보면, 동선이 거의 겹치지 않는 순환산책로를 한 바퀴 돌아온 셈이 된다. 또한 참나무, 소나무, 백당나무, 오리나무, 국수나무 등이 크고 작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각 능의 주변마다 풍광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어느 숲길에 들어서도 새로운 멋이 느껴진다.

관리소 앞에서 건원릉 가는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울창한 참나무 숲길을 빠져나오자마자 수릉이 보인다. 24대 헌종의 아버지 문조(효명세자)와 신정왕후의 능인 수릉 옆에는 5대 임금 문종과 현덕왕후의 능인 현릉이 있다. 다시 그곳을 지나서 키 큰 소나무들이 열병하듯 늘어선 숲길을 빠져나오면 건원릉 앞에 당도한다.

건원릉은 잔디 대신 억새가 봉분을 뒤덮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훗날 태종이 된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고향인 함흥을 몹시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위해 고향의 흙과 억새를 가져오게 해서 봉분을 단장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만 들어봐서는 효심이 매우 깊은 아들이라 생각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생전의 태조는 죽은 뒤에 계비 신덕왕후와 함께 묻히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목릉. 넓은 잔디밭이 시원스럽다.

기를 원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에 자신의 묏자리까지 마련해두었다. 하지만 태종은 아버지의 유언까지 거스르며 지금의 동구릉에 모셨고, 신덕왕후의 능은 도성 밖으로 옮겨버렸다.

건원릉 북쪽의 동구릉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는 14대 선조와 의인왕후, 계비인 인목왕후 등 세 사람이 잠든 목릉이 있다. 3개의 능이 뚝뚝 떨어져 있어서 능과 능 사이에는 드넓은 잔디밭이 펼쳐진다. 그래서 동구릉의 여러 능역 가운데 가장 시야가 시원스럽다. 하지만 일반인의 출입은 11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는 출입금지구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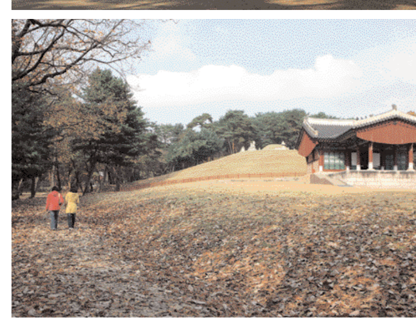
건원릉과 휘릉(조선 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능) 사이에는 참나무숲과 덩굴식물, 키 작은 관목 등이 뒤섞인 숲이 펼쳐진다. 휘릉은 현재 정자각과 비각이 보수공사 중이어서 제대로 둘러보기 어렵다. 휘릉을 지나 원릉으로 가는 길에는 우람한 참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군데군데 소나무와 단풍나무도 서 있어서 늦가을의 정취가 특히 아름답다. 또한 참나무 잎이 수북한 숲 바닥에는 파릇한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있어 잠시 누워서 뒹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기도 한다.

깊고 그윽한 동구릉 숲… 발걸음 떼기 아쉬워

원릉은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능이다. 조선의 임금 가운데 가장 재위 기간이 길고 장수했던 영조는 원래 정비인 정성왕후가 묻힌 서오릉의 홍릉을 자신의 능으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든 할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던 손자 정조는 할아버지의 능을 이곳에 조성했다.

원릉에서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 조금 가면 삼거리를 만난다. 왼쪽은 혜릉(조선 20대 경종의 정비 단의왕후 심씨의 능), 순릉(조선 9대 성종의 정비 공혜왕후의 능)이나 다시 정문으로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 봉분에 잔디 대신 억새를 심은 점이 이채롭다(위). 갈바람에 떨어진 참나무잎이 수북하게 깔린 수릉 옆의 탐방로(아래).



여행 정보

코스 정보 동구릉의 9개 왕릉을 모두 둘러보는 탐방코스는 대략 4킬로미터 가량으로 2시간이 걸린다. 물론 쉬지 않고 바삐 걸으면 1시간 내에도 모두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찬찬히 걸으면서 숲의 정취도 만끽하고, 때로는 숲길 곳곳에 놓인 벤치와 평상에 앉아 주변 풍광도 감상하려면 3시간 내외의 시간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급적 일찍 찾아오는 것이 좋다. 동구릉의 입장 시간은 하절기(3~10월)에는 새벽 6시, 동절기에는 새벽 6시 30분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인적 뜸한 새벽 숲의 정취를 오롯이 즐길 수 있다.

숙박 구리 시내나 서울 동북부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수도권지역에서는 당일 여행이 가능해서 굳이 숙박이 필요없다.

맛집 동구릉 주차장 앞에 위치한 소풍갈비(031-563-6208)는 소갈비와 돼지갈비뿐 아니라 코다리찜, 감자보리쌈밥, 갈비탕, 버섯전골 등이 맛있는 집이다. 이 밖에 구리시의 맛집으로는 태능초가집(양념돼지갈비 · 031-572-2100), 서옹메밀(막국수 · 031-565-7006), 구리타워G레스토랑(경양식 · 031-554-0003) 등이 유명하다.

가는 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나들목(또는 구리나들목, 43번 국도) ➡ 동구릉

나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경릉(조선 24대 헌종과 정비 효현왕후 김씨, 계비 효정왕후 홍씨의 능)과 자연학습장으로 가는 길이다. 경릉을 지나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자연학습장 길은 산불 방지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10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총 2킬로미터쯤 되는 이 길의 중간에 양묘장과 자생식물포가 있어 우리 땅에 자생하는 여러 풀꽃들을 한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다. 올가을에는 아차산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가 출몰해 포수들까지 동원한 포획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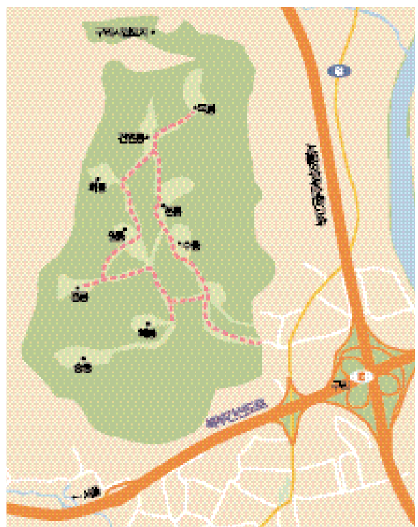
경릉은 동구릉 순환산책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한다. 그래서 왕릉을 둘러본 뒤에는 왔던 길로 되돌아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가까이에 개울이 흐르는 데다 호젓하고 자연스러운 멋이 돋보이는 숲길이라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곳이다.

이제 남은 것은 20대 경종의 왕비 단의왕후 심씨가 묻힌 혜릉뿐이다. 혜릉 가는 길가의 숲에는 참나무가 많지만, 혜릉 자체는 곧게 뻗은 소나무들에 에워싸여 있다. 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데다 소나무 숲이 울창해서 전체적으로 푸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동구릉 능역에는 높이 15미터, 수령 2백 년 이상 된 소나무가 약 4백여 그루 있는데, 혜릉 주변의 소나무 숲이 특히 기품 있고 보기 좋다.

혜릉 남쪽의 깊숙한 곳에도 18대 현종과 왕비 명성왕후 김씨의 능인 숭릉이 있다. 34세를 일기로 승하한 현종도 순탄치 않은 역정을 겪은 임금이다. 아버지인 봉림대군(효종)이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 있는 동안 머나먼 이국땅에서 태어났다. 현재 숭릉은 산불 방지와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일 년 내내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다.

동구릉의 숲은 깊고도 그윽하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도시 한복판에서 강원도 첩첩산중으로 순간이동을 한 듯한 착각마저 든다. 조붓한 숲길을 걷는 동안 새소리와 물소리가 쉼 없이 들려온다. 아쉬운 발걸음을 되돌려 정문을 다시 나설 때면 마치 짧고도 나른한 봄꿈을 꾼 듯한 몽롱함이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는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행복 디자이너 최윤희가 추천하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남이 보는 '나'… 굴레를 벗으세요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 전에 자신에게 떳떳하고
멋진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늦가을을 털어버리려는 듯 스산하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초겨울의 문턱에서 '행복 디자이너' 최윤희(62) 씨를 만났다. 모자, 조끼, 바지 등을 브라운 컬러로 매칭해 멋스럽게 차려입은 그를 마주하니 겉모습만큼이나 개성 있는 그의 이력이 떠올랐다.

그는 38세 전업주부에서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외환위기 이후엔 사람들에게 행복과 용기를 전하는 명강사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시켜왔다. 이렇듯 다양한 일을 하며 당당히 살아온 그지만 자신의 타고난 DNA였던 '겸손과 배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어렸을 적 제 별명은 '최미안'이었어요. 남의 눈치만 보다 보니 상대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죠. 주부로 살 때는 더했어요. '나는 엄마니까, 아내니까'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회사 생활을 하니까 남한테 무조건 잘 보이기 위해 'YES'라고 답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건 내 삶을 위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최 씨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상담전문가 듀크 로빈슨이 쓴 책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추천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없애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란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강연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고민을 듣게 돼요. 그럴 때 꼭 나오는 게 좋은 사람 콤플렉스예요. 무조건 참고 배려하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회사도 다녔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내가 희생하고 말지'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란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만 좋은 거예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해요."

책에서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9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완벽해야 한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 '침묵은 금이다' '화는 꾹 참아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최 씨는 이 중에서도 좋은 사람의 덕목처럼 굳어진 '완벽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는 프로들이 일하는 곳이니까 일적인 면에 있어서 완벽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 평가를 자신이 내린다는 것이 중요해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했다고 느끼면 된다는 거죠. 설사 완벽하지 못해도 부족한 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단 1퍼센트라도 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최 씨는 남들만 지나치게 신경 쓰고 살면 자신의 인생에서 '엑스트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계획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살라고 조언했다.

"지나치게 '착한 것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회도 문제지만 무엇을 하든 욕심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만의 브랜드 파워를 지닐 때 상상했던 것 이상의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최윤희 씨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벗어던지고 자신만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얘기한다.

자식 이름에 유학〈儒學〉을 許하노라

여말선초(麗末鮮初) 격동기를 거치며 유학(儒學)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관리들도 같은 신념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조선 초 유명관리들이 지은 자식들의 이름을 살피다 보면 당시 그들이 가진 유학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유학 실천의 5대 근본원칙이라 하여 흔히 '오상(五常)'이라 부른다.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해 조선 건국에 참여하고 도승지를 거쳐 의정부 참찬사를 지낸 이문화(李文和)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었다. 인의예지신 순서대로 이효인(李孝仁) 이효의(李孝義) 이효례(李孝禮) 이효지(李孝智) 이효신(李孝信)이라 이름 짓고 막내인 여섯째는 오상(五常)의 상(常)자를 따와 이효상(李孝常)이라고 지었다.

이문화와 비슷한 시대를 살며 태종 때 우의정에까지 오른 노숭(盧嵩)의 다섯 아들도 노숭인(盧崇仁) 노숭의(盧崇義) 노숭례(盧崇禮) 노숭지(盧崇智) 노숭신(盧崇信)이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다가 아들이 다섯에 이르지 못해 중단된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아들이 일곱까지 된다면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사례도 있다. 태조 이성계의 3남 익안대군 이방의(李芳毅)의 아들 이석근이 그렇다. 그는 일곱 아들의 이름을 이인(李仁) 이의(李義) 이례(李禮) 이지(李智) 이신(李信)이라고 짓고, 다음은 삼강(三綱)의 강(綱)을 따와 이강(李綱), 그리고 막내인 일곱째는 이상(李常)이라고 지었다.



일러스트 · 이우정

오상(五常) 못지않게 자주 사용된 유학 논리는 〈논어〉 '학이(學而)' 편에 나오는 '온량공검양(溫良恭儉讓)'이다. '공자가 온량공검양했기 때문에 제왕들이 그에게 정사(政事)를 들으려 했다'는 대목에서 나온다.

고려 말 재상을 지낸 안종원(安宗源)은 네 아들 이름이 안중온(安仲溫) 안경량(安景良) 안경공(安景恭) 안경검(安景儉)이다. 이름 덕인지 중온, 경량은 벼슬이 중추(中樞 · 재상급)에 이르고 경공은 개국 공신으로 참여해 흥녕군에 봉해졌으며 경검 또한 공조전서(훗날의 판서)에까지 이른다.

'인의예지신' 유학 실천 근본원칙 따 이름 짓는 일 흔해

'온량공검양'은 다양하게 변주되어 작명에 사용됐다. 여진에서 귀화해 이성계의 개국을 도왔던 공신 이지란의 아들 이화영(李和英)에게는 여섯 아들이 있었다. 이효량(李孝良) 이효정(李孝貞) 이효온(李孝溫) 이효검(李孝儉) 이효양(李孝讓) 이효강(李孝綱)이다. 둘째의 정(貞)은 잠시 후 살펴볼 〈주역〉의 '사덕(四德 · 元亨利貞)'에서 따온 듯하고 막내의 강(綱)은 삼강에서 따온 것이다.

태종의 사위였던 무장 권복(權復)은 일곱 아들의 이름을 순서 그대로 권온(權溫) 권량(權良) 권공(權恭) 권검(權儉) 권양(權讓)으로 짓고 아래 두 아들에게도 늘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뜻을 담아 권외(權畏), 권신(權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주역〉의 사덕 또한 이름에 자주 사용됐다. 세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홍여방(洪汝方)은 세 아들의 이름을 홍원용(洪元用) 홍형용(洪亨用) 홍이용(洪利用)으로 지었다. 넷째 아들이 생겼다면 분명 그 이름은 홍정용(洪貞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利)는 유학에서 흔히 의(義)와 대비되어 부정적 뉘앙스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 때의 명신 이명덕(李明德)은 다섯 아들 이름을 원근(元根) 형근(亨根) 정근(貞根) 녕근(寧根) 효근(孝根)이라고 지었다. 이(利)를 피하려는 경향은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 연산군 때 멸문지화를 당한 이세좌(李世佐)는 네 아들 이름을 수원(守元) 수형(守亨) 수의(守義) 수정(守貞)으로 지었다. 이(利)를 의(義)로 바꾼 것이다.

반면 태종 때의 최고 정승 하륜(河崙)은 적자 1명과 서자 3명을 두었는데, 이름이 하구(河久) 하장(河長) 하연(河延) 하영(河永)이다. 뭔지 모르지만 영구(永久)히 연장(延長)되기를 바랐던 것일까? 또 세종 때의 최고 정승 황희(黃喜)의 세 아들 이름은 치신(致身) 보신(保身) 수신(守身)이다. 하륜에게서는 난세의 꿈을, 황희에게서는 난세의 지혜를 읽어내야 하는 건지. G

국악과 양악의 만남 절묘하게 살아난 '황진이'

소리극으로 다시 태어난 '황진이'

일시	11월 26(목)~29일(일) 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문의	02-580-3300 www.gugak.go.kr



국립국악원이 조선시대의 뛰어난 예인(藝人)이요, 명기(名妓)였던 황진이의 지란지교(芝蘭之交)의 사랑을 재조명하는 소리극 '황진이'를 무대에 올린다. '황진이'는 서도소리극 '남촌별곡'(1998) '시집가는 날'(2000, 2002), 제주소리굿 '이어도 사나'(2004)로 이어져온 국립국악원 소리극의 맥을 잇고 있다.

이 작품은 황진이가 기생이 된 배경에서부터 기생으로 살면서 선비들과 교류하고 송도의 지족선사를 파계시키고 종친부 벽계수를 꺾어가는 과정을 다양하게 나열한다. 극본은 '청산리 벽계수야' '상사몽' 등 황진이의 시조 8편과 '동지음' '마음이 어린 후니' 등 서경덕의 시 4편, 백호 임제의 시조 '청초 우거진 골에' 등을 바탕으로 한, 34개의 곡조가 있는 노랫말로 구성됐다. 여기에 경기민요와 서도민요가 중심이 된 판소리와 민속무용, 불교무용 등 다채롭고 아름다운 춤사위가 곁들여져 극적인 재미를 더한다. 또한 창작음악과 다양한 기법의 영상이 구현되는 무대 배경은 예술성과 문학성을 두루 겸비했던 황진이의 삶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무용단, 정악단 등 6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서울예술대학 김효경 교수가 총지휘한다. 황진이 역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출신으로 항상 새로운 도전을 거듭해온 소리꾼 최수정 씨가 맡았으며, 이번 소리극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란지교의 사랑을 상징하는 화담 서경덕 역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인 이정규 씨가 맡았다.

연출가 김효경 씨는 "소리극 '황진이'는 국가 간 교류를 위해 세계인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라며 "이번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현대적이고 세련된 노래들이 가야금, 거문고 등의 국악기는 물론 바이올린, 비올라 등 다양한 서양악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우리 대중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특별전 '잔치풍경,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일시	12월 6일(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000 www.museum.go.kr

우리 전통문화 속에 나타난 축하의례와 잔치의 모습들을 조선시대 각종 기록화와 공예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예를 중시한 조선시대의 다양한 잔치 모습을 조명한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와 2부는 왕실의 축하의례와 향연문화를, 3부와 4부는 사대부 및 민간의 잔치문화를 다양한 공예품과 함께 입체적으로 재현해 조선시대 잔치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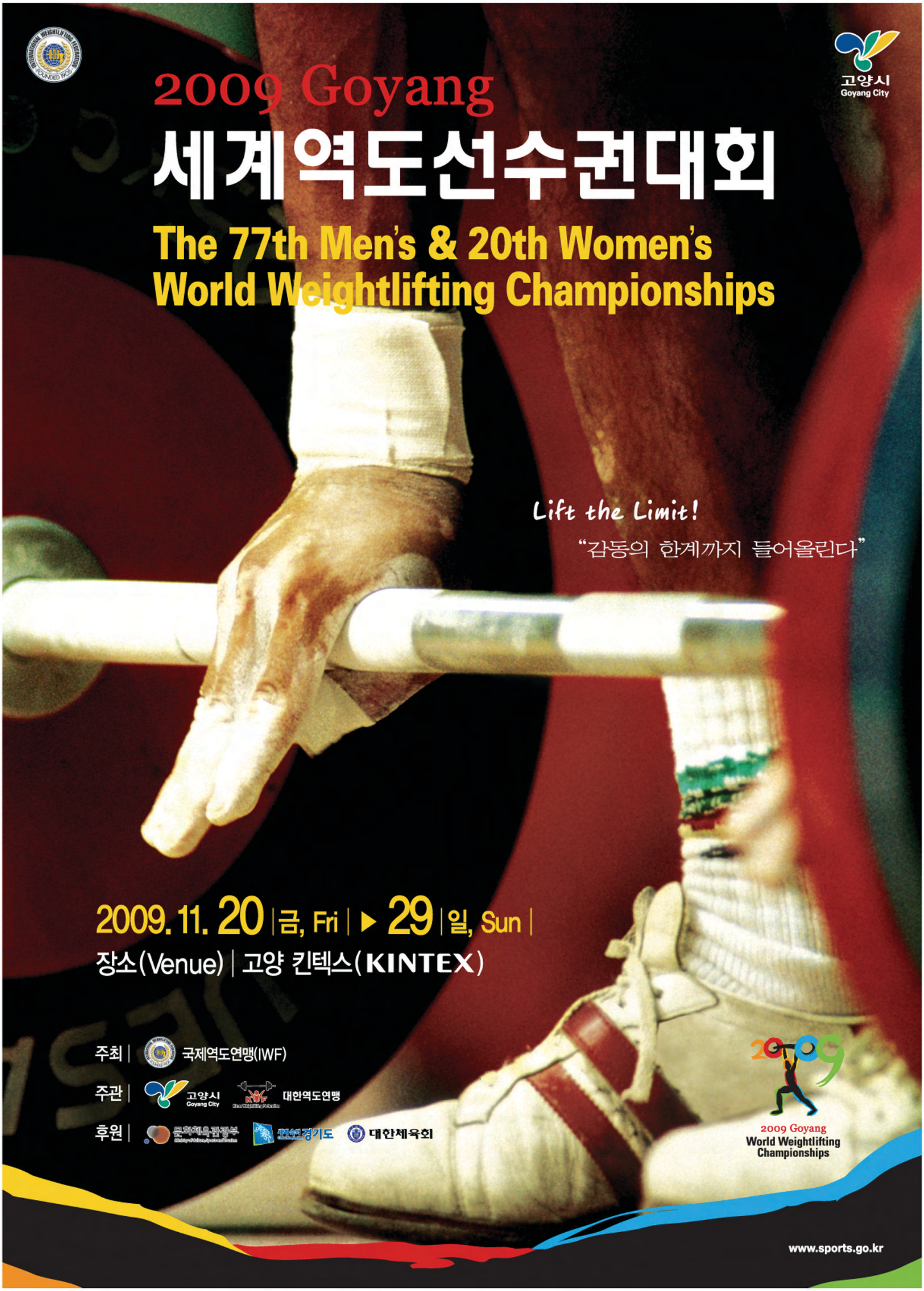


미술창작스튜디오 특별전 '버라이어티'전

일시	12월 6일(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요일 오후 8시까지(월요일은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2188-6000 www.moca.go.kr



국내외를 오가며 현대미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 출신 작가 16인이 주축이다.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국내외 큐레이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작가'를 선발 기준으로 한 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들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엄선해 전시 제목처럼 다채롭게 선보인다. 다양한 소재와 재료로 장르를 넘나드는 67점의 작품은 한국 젊은 작가들의 뛰어난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2009 Goyang
세계역도선수권대회
The 77th Men's & 20th Women's
World Weightlifting Championships
고양시
Goyang City
Lift the Limit!
"감동의 한계까지 들어올린다"
2009. 11. 20 | 금, Fri | ▶ 29 | 일, Sun |
장소(Venue) | 고양 킨텍스(KINTEX)
주최 | 국제역도연맹(IWF)
주관 | 고양시 Goyang City 대한역도연맹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대한체육회
2009 Goyang
World Weightlifting
Championships
www.sports.go.kr


Korea
2010-2012
VISIT KOREA YEAR
Visit Seoul 2010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배용준
2010-2012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한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당신의 미소를 선물하세요.
따뜻한 미소를 먼저 건네는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 미소 국가대표 입니다.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VISIT KOREA COMMITTE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